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동일조건변경허락. 귀하가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했을 경우에는, 이 저작물과 동일한 이용허락조건하에서만 배포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2011년 2월

교육학석사(미술교육)학위논문

중등 미술수업의 참여도 증진을 위한 실생활 활용 방안 연구

- 스텐실 판화를 중심으로 -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미술교육전공

한 예 형

중등 미술수업의 참여도 증진을 위한 실생활 활용 방안 연구

- 스텐실 판화를 중심으로 -

A study on utilization in real life for improving
participation in secondary art class

- Focusing on stencil print -

2011년 2월 25일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미술교육전공

한 예 형

중등 미술수업의 참여도 증진을 위한 실생활 활용 방안 연구

지도교수 김 익 모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미술교육)학위 청구논문으로 제출함.

2010년 10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미술교육전공

한 예 형

한예형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정 윤 태 인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김 인 경 인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김 익 모 인

2010 년 12 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목 차

ABSTRACT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3
제2장 본 론	5
제1절 스텐실 판화의 이론적 배경	5
1. 판화의 개념 및 종류	5
가. 판화의 개념	5
나. 판화의 종류	7
2. 스텐실 판화의 개념 및 역사	12
가. 스텐실 판화의 개념	12
나. 스텐실 판화의 역사	13
3. 스텐실 판화의 교육적 가치	14
제2절 스텐실 기법을 활용한 수업방안 연구	17
1. 스텐실 판화 수업의 목표	17

2. 스텐실 제작 방법	18
가. 도구와 준비	18
나. 제작 과정	19
3. 수업 모형	21
가. 개별 학습 vs 협동 학습	23
나. 단기 학습 vs 장기 학습	35
다. 자연 재료 vs 인공 재료	45
라. 단색 배열 또는 다색 배열	56
제3장 결론	61
참고문헌	64

표 목 차

<표 1> 스텐실 판화의 제작 과정	19
<표 2> 개별 학습 수업 모형	24
<표 3> 협동 학습 수업 모형	29
<표 4> 단기 학습 수업 모형	35
<표 5> 장기 학습 수업 모형	39
<표 6> 자연 재료 수업 모형	46
<표 7> 인공 재료 수업 모형	51
<표 8> 단색 배열 또는 다색 배열 수업 모형	57

그림 목 차

[그림 1] 블록판화의 원리	8
[그림 2] 오목판화의 원리	9
[그림 3] 평판화의 원리	11
[그림 4] 공판화의 원리	12
[그림 5] 스텐실판화의 제작 과정	21
[그림 6-1] 싸인 1	26
[그림 6-2] 싸인 2	26
[그림 6-3] 싸인 3	26
[그림 6-4] 싸인 4	26
[그림 6-5] 재료 준비 (파일)	27
[그림 6-6] 재료 준비 (물건정리함)	27
[그림 6-7] 재료 준비 (스티커)	27
[그림 6-8] 도안 그리기	27
[그림 6-9] 도안 오려내기	27
[그림 6-10] 스티커로 이미지 만들기	27
[그림 6-11] 배경 틀 만들기	28
[그림 6-12] 위치 정하기	28
[그림 6-13] 배경 위치 정하기	28
[그림 6-14] 매니큐어 칠하기	28
[그림 6-15] 락카 뿌리기	28
[그림 6-16] 락카 말리기	28
[그림 6-17] 파일 완성작	29
[그림 6-18] 물건정리함 완성작	29
[그림 7-1] 봄 (동성여중 1-5반 모듈1)	32

[그림 7-2] 여름 (동성여중 1-5반 모듬2)	32
[그림 7-3] 가을 (동성여중 1-5반 모듬3)	32
[그림 7-4] 겨울 (동성여중 1-5반 모듬4)	32
[그림 7-5] 재료 준비 (천)	33
[그림 7-6] 재료 준비 (염료)	33
[그림 7-7] 도안 그리기	33
[그림 7-8] 도안 오려내기	33
[그림 7-9] 염료 접시에 덜어내기	33
[그림 7-10] 염료 혼색하기	33
[그림 7-11] 부분 채색하기 1	34
[그림 7-12] 부분 채색하기 2	34
[그림 7-13] 그라데이션 효과주기	34
[그림 7-14] 겨울달력 완성	34
[그림 8-1] 스티커문구 1	37
[그림 8-2] 스티커문구 2	37
[그림 8-3] 스티커문구 3	37
[그림 8-4] 스티커이미지	37
[그림 8-5] 도안 그리기	38
[그림 8-6] 도안 오려내기	38
[그림 8-7] 위치 정하기	38
[그림 8-8] 스펀지로 찍기	38
[그림 8-9] 모양 오려내기	38
[그림 8-10] 스티커 완성작	38
[그림 9-1] 액자 구성	42
[그림 9-2] 사진 이미지	42
[그림 9-3] 사진 배경	42
[그림 9-4] 액자 꾸미기	42

[그림 9-5] 재료 준비 (색지)	43
[그림 9-6] 재료 준비 (아크릴 물감)	43
[그림 9-7] 색지에 사진 붙이기	43
[그림 9-8] 도안 크기 정하기	43
[그림 9-9] 도안 그리기	43
[그림 9-10] 도안 오려내기	43
[그림 9-11] 붓으로 칠하기	44
[그림 9-12] 우드락에 붙이기	44
[그림 9-13] 액자에 스펀지로 찍어 꾸미기	44
[그림 9-14] 액자만들기 완성작	44
[그림 10-1] 가방 리폼	48
[그림 10-2] 손수건 리폼	48
[그림 10-3] 티셔츠 리폼 1	48
[그림 10-4] 티셔츠 리폼 2	48
[그림 10-5] 재료 준비 (티셔츠)	49
[그림 10-6] 재료 준비 (과일, 주스)	49
[그림 10-7] 도안 그리기	49
[그림 10-8] 도안 오려내기	49
[그림 10-9] 옷감 사이에 두꺼운 종이 넣기	49
[그림 10-10] 위치 정하기	49
[그림 10-11] 스펀지로 먹물 묻히기	50
[그림 10-12] 스펀지로 찍어내기	50
[그림 10-13] 칫솔로 뿌리기	50
[그림 10-14] 이미지 만들기	50
[그림 10-15] 분무기로 주스 뿌리기	50
[그림 10-16] 자연재료 티셔츠리폼 완성	50
[그림 11-1] 그래피티 1	53

[그림 11-2] 그래피티 2	53
[그림 11-3] 벽화	54
[그림 11-4] 실내 인테리어	54
[그림 11-5] 위치 정하기	54
[그림 11-6] 도안 그리기	54
[그림 11-7] 도안 오려내기	55
[그림 11-8] 배경 뿌리기	55
[그림 11-9] 부분 채색하기	55
[그림 11-10] 사물함 꾸미기 완성작	55
[그림 12-1] 편지지 이미지	59
[그림 12-2] 카드 이미지	59
[그림 12-3] 재료 준비 (색지)	59
[그림 12-4] 재료 준비 (채색도구)	59
[그림 12-5] 도안 그리기	60
[그림 12-6] 도안 오려내기	60
[그림 12-7] 다색으로 채색하기	60
[그림 12-8] 편지지 완성작	60

ABSTRACT

A study on utilization in real life for improving
participation in secondary art class
- Focusing on stencil print -

Han Yea-Hyung

Advisor : Kim ik mo, Ph.D.

Fine Arts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osun University

This study is focused on searching for a plenty of methods and practical living-related materials that engage more students in expressing themselves and in participating in class activities by applying stencil printmaking in the junior-high to high school arts education.

In Chapter one of the paper, the printmaking was classified to relief printing, intaglio, planographic prints, and stencil in accordance with its conception and making process for the better understanding of overall printmaking based on the various literature research. Especially out of this research, the specific concept and history for stencil was focused and then based on the research, the educational values in applying stencil to the class was described.

In Chapter two, the class model where student can utilize the stencil techniques and produce some art works in the real lives after acquiring knowledge and skills through self-search of their surroundings and materials. And the study will present step-by step skill-learning model by introducing materials and skills for each step and by classifying coaching

ways into individual vs group learning, short term vs long term, natural vs artificial materials, and single-color vs multi-color array.

In conclusion, it is expected that the living-art utilization through stencil skills would be activated and more study on the educational application for that will be initiated. Also it would be very promising that this study would help students enhance their expression skills and creativity, expand their spectrums of experiences through arts, and actively embrace the artistic activities in their lives.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예술의 한 장르로서 인류의 문화 창조와 발전에 공헌해 온 미술은 생활 곳곳에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며, 생활 속에서 얻은 경험과 지식을 활용하여 인간의 삶을 정서적으로 풍요롭고 윤택하게 변화시켜 왔다. 또한 미술은 급변하는 현대 사회에서 보고 감상하는 차원을 넘어 생활에 필요한 각종 제품에 폭넓게 활용되는 등 그 역할이 증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미술교육도 생활과의 관련성이 어느 때보다도 강조되고 있다. 과거의 미술교육이 미술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작품을 이해하고 감상하며 좋은 작품을 본뜨는 데 중점을 둔 반면, 현재의 미술교육은 개인의 창의성과 생활에서의 실용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

앞으로 시행될 제8차 미술교육과정 개정안은, 실생활과 관련된 미술 활동의 폭을 넓히고 심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작품을 직접 만들어 보고 생활에 활용하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미술교육의 주목표로 삼고 있다. 또 기존의 제7차 교육과정의 내용을 더욱 구체화하여 미술교육의 기본 방향을 학교 급별로 ‘기초 교육, 활용 교육, 가치 교육’ 등 세 가지로 구분하고, 중등학교에서는 생활 속에서 접하는 시각적, 조형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활용 교육’을 특히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미술교육의 방향 변화는, 타 교과에 비해 학생들이 소홀하게 받아들이거나 수업 시간에 수동적으로 참여하여 의무적 단위나 이수하는 데 그치기 쉬운 중등학교 미술교육의 일대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문제는 어떻게 하면 실생

활과의 관련성을 강조하는 새 미술교육과정의 취지를 살리고, 학생들의 수업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가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본 논문은, 무심코 지나치기 쉬운 생활 주변의 평범한 소재들을 미술의 영역으로 끌어들이 일상생활에서도 꾸준히 활용할 수 있는 수업을 통해 직접 이해하고 체험하게 함으로써 수업 참여도를 높이고, 새 미술교육과정의 ‘활용 교육’의 취지를 구현하는 바람직한 수업 모형을 탐구,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수업 모형을 연구하는 방법으로 여러 가지 미술 기법 중 판화 영역에 속해 있는 스텐실 기법을 통해 생활 속에서 손쉽게 제작 및 활용이 가능한 다양한 방법을 소개하였으며 학생들이 미술에 대한 거부감 없이 자연스럽게 접근하여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교육방향을 제시하고 학교 안과 밖으로 자유로운 표현 활동을 하는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체험 학습의 보편화에 대한 기대를 가져본다.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본 논문은 수업 참여도를 높이고 새 미술교육과정의 ‘활용 교육’의 취지를 구현하는 구체적인 수업의 주제로 스텐실 판화를 주목하였다. 스텐실 판화는 일상생활의 다양한 소재들을 활용하여 학생들이 작품을 직접 제작해 볼 수 있고, 그 과정을 통해 개인의 잠재된 미적 감각을 계발하는 데 알맞은 표현 영역이기 때문이다.

소재의 풍부성, 기법의 다양성, 제작과정의 용이함, 여러 방면에서의 창의적 적용과 활용도 등 스텐실 판화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장점은 학생들의 관심과 흥미를 유발하는 데 적절하며, 실생활과의 관련성 또한 매우 높다.

본 논문은 이러한 스텐실 판화를 제작하는 기법을 어떻게 구조화하고 단계화하여 학생들이 쉽게 이해하고, 흥미를 가져 직접 작품을 만들어 보며, 실생활에 적용할 것인가 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

본 논문의 개괄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론적 배경으로 판화의 사전적 의미와 특성 및 종류를 알아본 다음, 스텐실 판화의 개념과 발전 과정 및 활용도를 소개하고, 이를 바탕으로 스텐실 판화가 교육적으로 어떠한 가치를 가지는지에 대해 서술하였다.

둘째, 스텐실 판화 수업에서 학습 목표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준비물은 무엇이고 어떤 과정을 거쳐 제작하는가, 구체적인 수업 모형으로는 어떤 것들이 가능한가 하는 문제에 대해 고찰하였다.

셋째, 본 논문이 제시한 스텐실 판화 수업의 기대 효과, 유의 사항 등에 대해 서술하였다.

넷째, 종합적으로 앞으로의 중등학교 미술교육의 발전 방향과 미술의 생활화를 위한 개선점을 제시한다.

본 논문의 연구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미술 수업, 판화 수업, 스텐실 판화의 기법을 활용한 수업의 여러 모형들을 수집하여 참고 자료로 활용하였다.

둘째, 현행 학교 미술교육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다룬 자료들을 참고하였다.

셋째, 미술교육, 판화, 스텐실 판화와 관련된 문헌을 수집, 활용하였다.

제2장 본 론

제1절 스텐실 판화의 이론적 배경

1. 판화의 개념 및 종류

가. 판화의 개념

판화는 금속이나 돌, 목재 등의 중간 매체를 통해 그 표면에 여러 가지 재료를 사용하여 형상을 붙이고 그리거나 파내 판을 만든 다음, 잉크나 물감 등을 올려 종이나 천, 또는 물체 따위에 인쇄하는 복합적인 간접 회화를 말한다.

어원적 의미에 영어로는 프린트(print)또는 프린트메이킹(printmaking)이라고 하고, 불어로는 그라비르(gravure) 또는 에스탕프(estempe)라고 표기하는데, 여기서 gravure의 ‘파고 새긴다’는 개념과, estempe의 ‘찍어 낸다’는 개념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흔히 판화를 통칭하여 그래픽 아트(graphic art)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초기의 판화 예술이 현대 판화와는 다르게 주로 단색의 선묘로 이루어진 것이 많았기 때문이다.¹⁾

판을 찍는 데는 다양한 원리가 적용되며 잉크가 판에 입혀지는 방법에 따라 종류가 구분된다. 실제로 어떤 방법으로든지 잉크를 입힌 부분과 입히지 않은 부분을 구분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²⁾

판화는 압력이나 틈 사이로 묻어나는 방법을 이용해 찍거나 찍히는 표현 형식으로, 칠하거나 바른다는 개념의 페인팅과는 다르게 판화 고유의 색감과 밀도가 생기

1) 박남신, 『현대판화기법1-목판화와 동판화』, 예경, 1994, p.12

2) 서승원, 『판화미술의 세계-판화미술용어(A~J)』, 서치방, 1994, p.서언

게 된다.

판화의 제작은 크게 밑그림을 그리는 과정, 판을 제작하는 제판 과정, 잉크를 판에 입혀서 찍어내는 프린팅 과정까지 세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이 때 작가의 의도와 드로잉이 가장 중요하고, 그에 따라 재료를 다루는 기술적 숙련이 요구되며, 작가가 선택하는 재료나 기법, 그에 따른 잉크의 성질과 잉크를 판에 입히는 방법, 종이의 질, 프레싱(pressing)³⁾의 방법과 정도 등에 따라 작품의 성패가 가려지게 된다.

이러한 제작 과정의 단계에 따라 숙련된 기술자나 예술가도 회화사, 조각사, 인쇄사로 나누어지는 수가 있는데, 오늘날의 판화가 ‘오리지널’한 것으로 취급되기 위해서는 제1단계의 밑그림을 그리는 단계와 제2단계의 판을 제판하는 단계가 동일한 작가에 의해서 행해져야 하고 소위 화가 겸 판화가라는 ‘Peintre-graveur’⁴⁾의 개념이 이것에 해당된다. 또한 오리지널 판화⁵⁾는 위의 제1단계, 제2단계는 물론 제3의 단계까지 즉, 작가가 인쇄에 참여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오늘날의 판화에서 서명⁶⁾이 하나의 가치 기준으로 중시되는 것도 그 때문이다. 또 이렇게 작가 자신이 처음 1단계부터 3단계 까지 판화 제작의 전 과정에 참가한다면, 만들어지는 판화의 수도 한정된다. 이런 한정판의 경우는 작품의 공간 어딘가에 그 수를 분수로 기록하는 수가 많으며 예를 들어 12/50이라면 인쇄한 장수가 50점이고 그 중에서 12번째라는 것을 나타낸다. 그리고 이 범위 내의 것이라면 몇 번째에 인쇄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질적으로 커다란 차이는 없으며 모두 ‘오리지널’ 작품으로 인정된다.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 사회에서 이른바 오리지널 판화의 개념은 ‘오리지널리티’를

3) 압착, 압착기 등으로 성형하는 방법으로 압착기의 움직이는 속도, 기계의 수평 및 보조기구의 탄성력에 의해 잉크가 묻어나오는 정도가 차이난다.

4) 창작 판화가를 뜻하는 단어로 여기서 peintre는 화가, 도장공, 페인트공, [문어](심리, 풍속 따위를)묘사하는 작가를 뜻하며graveur란 조각가, 판화가, (사진 제판의)제판사를 뜻한다.

5) 작가가 직접 만든 것. 즉, 작가가 판화 제작을 목적으로 하여 직접 만들어 제작하거나 작가가 참여하여 지시대로 공방에서 제작하고 작가 자신이 인정한 판화 또는 오리지널을 알리는 작가 자신의 서명과 일련의 한정번호가 적힌 판화 작품을 의미한다. 또한 원판의 폐기를 원칙으로 제작된 것을 말한다.

6) 작품을 완성한 후 여백의 하단 부분에 왼쪽부터 일련번호/총 매수, 작품의 제목, 작가의 서명, 년도 순으로 적는 것을 말하며 현대의 판화가들은 적절한 수량의 판화를 찍은 후 보통 원판을 파기하거나 서명함으로써 자신이 정한 수량 이상의 판화가 인쇄되는 것을 막는다.

중시하는 근대의 일반적 동향에 호응함과 동시에, 기존의 판화가 감수해왔던 부차적이고 타율적인 성격에 대한 반성이고, 복제의 역할이 사진에 의해 대체된 상황에서 필연적인 탈출로이자, 창의성을 강조하는 새로운 도전이다.

판화가 다른 미술 영역과 차별화되는 가장 큰 특징은 작품의 복수성이라고 할 수 있다. 미술 영역에서 같은 작품의 다량 제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중의 미적 욕구를 여러 가지의 표현 방법으로 다양하게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유일한 장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나. 판화의 종류

판화는 판에 묻은 잉크가 종이나 천, 또는 어떤 물체에 찍히는 원리에 따라 기법을 분류하는 방법과 재료의 특성에 따라 구분하는 방법, 표현 요소에 따라 구분하는 방법으로 나뉜다.

첫째, 찍히는 판의 요철 원리에 따라 볼록 판화, 오목 판화, 평판화, 공판화 등으로 나뉜다.

둘째, 재료의 특성에 따라 동판화, 목판화, 석판화, 지판화, 고무 판화 등으로 나뉜다.

셋째, 표현 요소에 따라서 오리지널 판화, 복제 오리지널 판화, 복제 판화⁷⁾ 등으로 나뉜다.

일반적으로 판화를 구분하는 데 있어 제작 원리에 따라 기법을 구분한 다음, 다시 재료의 특성에 따라 구분을 하는 방법이 판화 영역의 기초적인 원리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7) 출판 복제를 목적으로 하여 수공업적인 판화 기법으로 원판을 만들어 찍어 낸 그림으로, 유명 인기작가의 판화, 유화, 수채화 등을 원화로 해서 찍어낸 것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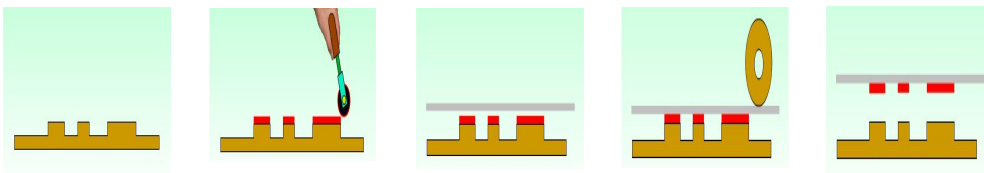
(1) 볼록 판화

볼록 판화는 평평한 판에서 파내고 남아 있는 돌출한 부분에 잉크를 묻혀 찍는 판법을 일컬으며 양각 기법과 음각 기법으로 다시 나누어진다.

양각 기법은 판에 그려 놓은 이미지 부분을 남겨 놓고 이미지 외에 필요 없는 부분을 파내 표현하고자 하는 부분을 볼록하게 만들어 찍는 방법이고, 반대로 이미지 부분을 파내어 표현하고자 하는 부분을 남김으로써 볼록한 부분에 잉크를 올려 찍은 것을 음각 기법이라 한다. 따라서 같은 밑그림이라도 양각은 밝은 느낌을 주고, 음각은 어두운 느낌을 주며 선의 활용도가 크다.

판의 재료는 목판, 리놀륨 판, 석고판, 찰흙 판, 종이판 등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찍는 방법은 찍을 종이를 놓고 그 위에 잉크를 올린 판을 이미지를 표현한 면이 종이쪽으로 가도록 뒤집어 얇은 프레스기의 압력을 조정하여 찍는다. 이 때 프레스기가 없을 경우 바렌⁸⁾과 손가락으로 대체하여 사용하기도 한다.

볼록 판화는 조각도의 형태에 따라 판을 조각함으로써 파내어지는 특유의 담백한 느낌과 흑백의 대비 효과 등의 특징을 살릴 수 있으며, 프레스기 압력의 세기 정도에 따라 엠보싱의 효과도 표현할 수 있다. 고무 판화, 목판화 등이 볼록 판화에 속하며 우리 생활에 활용된 예로는 팔만대장경과 같은 옛 서적들과 떡살 무늬, 도자기 무늬, 도장 등에 활용되었다.



[그림 1] 볼록판화의 원리⁹⁾

8) 바닥면이 평평하고 둥근 형태로 나무 판을 만들어 대나무 잎이나 천으로 둘러싸는데 그 사이에 솜을 넣어 반달 형태의 모양으로 만들고 볼록하게 튀어나온 부분으로 문지르는 도구를 말한다.

9) 출처 <http://gnp3737.com.ne.kr/home.ht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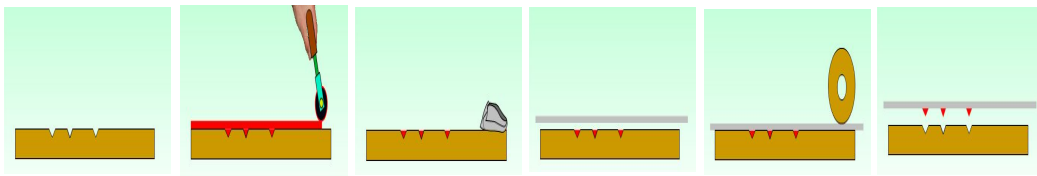
(2) 오목 판화

오목 판화는 금속의 판면 위에 이미지를 음각으로 깎아 내거나 부식을 하여 녹여 내 판을 제작하여 찍어내는 판화 기법으로, 오목하게 굽어내거나 부식한 부분에 잉크를 집어넣고 종이에 찍어내는 원리를 이용한다. 즉 원하는 형태의 뾰족한 도구를 이용하여 판에서 어느 정도의 깊이를 굽어내거나 화학적인 방법으로 요철을 만들어 낸 다음, 파내어진 오목한 부분에 잉크를 집어넣고 이미지 외 부분의 겉 표면에 있는 잉크를 닦아 제거한 뒤, 종이를 물에 적셔 흡입력을 강화하여 프레스기의 압력을 이용해 찍는다.

오목 판화는 다른 판종에 비해 갖추어야 할 장비들이 다양하고 판을 제작하는 과정이 복잡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바탕 되어야 원활한 작업이 가능하다. 특히 판 전체에 잉크를 얇게 펴 바른 다음, 오목한 부분에 세밀하게 잉크를 넣기 위해선 어느 정도의 작업 경험이 없으면 어려움이 따르지만 오목 판화의 기법 중 직접 판법에 속하는 드라이 포인트는 비교적 간단한 제작 과정과 준비를 갖추면 제작할 수 있다.

오목 판화는 날카로운 도구를 사용하기 때문에 정밀 묘사와 같은 세밀한 표현이 가능하며, 부식 방법에 의한 다양한 표현 효과를 나타낼 수 있고, 화학적인 방법으로 인해 우연의 효과도 얻을 수도 있다. 판각된 요철이 강한 압력에 의해 눌러 찍히는 까닭에 파낸 선의 찍힌 부분의 종이가 깊이에 따라서 같은 색감이더라도 확연히 차이가 나고 약간 도드라지며, 종이에 판 자국이 남는다.

오목판화는 지폐, 상품권, 그림의 인쇄, 상표 인쇄 등에 응용되어서 실생활에 널리 활용되고 있다.



[그림 2] 오목판화의 원리

(3) 평판화

평판화는 요철이 없는 평평한 면에 물과 기름의 섞이지 않는 성질을 이용한 것으로 기름이 주성분으로 된 재료로 드로잉 한 부분에만 잉크가 묻게 하여 석판용 프레스기로 찍어내는 기법을 말한다. 평판화는 다른 판화와 달리 파내는 방법이 아니라 드로잉한 이미지를 그대로 종이에 찍어내는 방법으로, 사용 재료에 따라 터치감이나 질감을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으며 명암의 변화를 통해 여러 가지 판화 중 회화적인 느낌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평판화 중 가장 대표적인 석판화는 본래 돌을 이용한 판화이나, 재료를 구하기가 어렵고 제판에 어려움이 있어 현재는 알루미늄 판이나 아연판으로 대체하여 제작되고 있다.

평판화는 대부분의 판화 기법이 매체를 통하여 옮겨지는 간접적인 표현 방법인데 반해, 찍혀 나오는 모습 그대로를 판 위에 자유롭게 그릴 수 있기 때문에 간접 표현이면서도 가장 회화와 근접한 표현이다. 판 위에 처리한 화학 물질이 반응함에 따라 다양한 변화들이 생기며 기름이 주성분인 리도크레용¹⁰⁾, 해먹¹¹⁾ 등의 유성 재료로 드로잉하고 그 위에 아라비아고무액¹²⁾을 골고루 펴 발라 물과 기름 부분을 완전히 분리시킨다. 그리고 테레핀¹³⁾을 사용하여 전체를 닦아 낸 후, 아스팔텀¹⁴⁾으로 다시 한 번 기름 성분을 발라 주고, 다른 부분에 잉크가 묻지 않게 물로 닦아 가면서 롤러로 잉크를 올려 석판 프레스기로 찍는다.

10) 석판화를 리도그래피(lithography)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리도(lithos)는 ‘돌’이라는 뜻의 그리스어에서 유래했고, 리도크레용이란 리도용 즉 돌에 사용할 수 있는 유성분의 크레용을 뜻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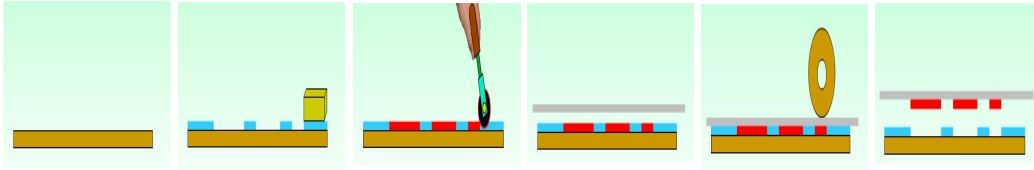
11) 석판 인쇄에 쓰이는 특수한 먹으로 기름먹이라고도 하며 화학적으로 해먹은 지방 입자와 색소 입자가 물이나 기름용제에 용해된 것이다.

12) 일명 아카시아 고무로도 불리는 아라비아고무는 수단 등 북동 아프리카에서 서식하는 아카시아과 나무에서 채취한 천연고무로 갈륨, 마그네슘, 염화칼슘 그리고 약간의 아라비아산을 함유한 화학 물질로 드로잉이 끝난 판면에 기름 성분을 정착시키기 위한 과정에서 사용하는 가장 중요한 재료이다.

13) 송진을 주원료로 한 휘발성 기름으로 무색이며 주로 유화 물감의 농도를 맞추는 데에 사용된다.

14) 아스팔텀, 고체 밀랍, 테레핀, 유성 펜슬 원료 등이 혼합되어 있는 아스팔텀은 액체로 된 것을 사용하며 지워진 그림에 다시 기름 성분을 발라 여러 장을 찍기 위한 보호 용액으로 판의 부식을 방지하는 데 사용된다.

이러한 평판화 원리가 생활에 응용된 예로는 신문이나 잡지, 포스터, 그림 책 등이 있다.



[그림 3] 평판화의 원리

(4) 공판화

공판화는 판에 드로잉을 한 뒤 나타내고 싶은 이미지 부분을 잘라 내어 구멍을 내고 뚫린 부분에 잉크를 통과시켜 찍어내는 판화로 등사 판화라고도 부른다.

공판화는 다시 스텐실 판화와 실크스크린 판화로 나뉘는데, 망을 사용하지 않고 좌우가 그대로 찍히는 것이 특징인 스텐실 판화는 넓은 의미로 종이나 얇은 금속 판을 오려내고 그 구멍으로 물감을 밀어 넣거나 분무기로 뿌려 넣고 찍어내는 것으로 공판화 전체를 총칭하기도 한다.¹⁵⁾ 이 기법은 다른 판화에 비해 제작 과정이 간단하고 도구의 제약이 적어 미술수업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다.

실크스크린 판화는 나무나 알루미늄, 플라스틱 등으로 만들어진 프레임에 망사 천을 팽팽하게 당겨서 고정시켜 틀을 만드는데 이 과정을 ‘견장한다’고 말한다. 천 위에 찍혀야 될 부분만 남겨 나머지 여백에 구멍을 메워서 판을 만들며, 구멍을 메우는 방법에는 접착제 역할을 하는 약품으로 메우는 법과, 감광액을 이용한 필름을 만들어 판을 제작하는 방법이 있다.

흔히 사용하는 방법은 트레팔지¹⁶⁾ 위에 먹물이나 검정 잉크를 사용하여 필름을 만들고 암실에서 감광기를 이용하여 판 위에 옮기는 방식이다.¹⁷⁾ 이러한 기법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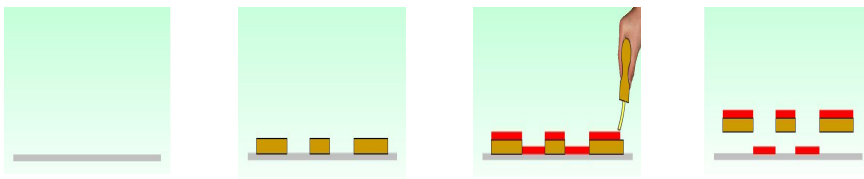
15) 김삼량, 『美術教育概論』, 미진사, 1992, p.237

16) 폴리프로필렌(PP)을 주원료로 만든 반투명 합성지로 유포(YUPO)의 한 종류이다.

17) 최지영, 「판지를 이용한 오목 판화 지도 연구」, 전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2003

인쇄된 작품을 세리그래프(serigraph)라고도 부르며 1960년대 팝아트 작가들인 앤디 워홀, 로이 리히텐슈타인 등에 의해 예술 장르로 자리 잡아 현재 우리 생활 속에서 포스터, 상품 포장, 옷감의 무늬 등의 장식을 하는 염색 법 등에 널리 활용되고 있다.

공판화는 다른 판화에 비해 색이 간결하고 소박하며 선명한 느낌을 주고 판의 좌우가 뒤바뀌지 않고 원화와 같이 찍히기 때문에 제작하기 쉽고, 종이나 플라스틱, 나무판, 금속, 섬유 등 다양한 곳에 찍을 수 있어 활용도가 매우 높다.



[그림 4] 공판화의 원리

2. 스텐실 판화의 개념 및 역사

가. 스텐실 판화의 개념

사전적 의미로서의 스텐실(stencil)은 글자나 무늬, 그림 따위의 모양을 오려 낸 후, 그 구멍에 물감을 넣어 그림을 찍어 내는 기법을 말한다. 마스크 용어로서는 디자인 기법의 한가지로 종이에 어떤 물체의 모양을 그린 다음, 그 그림 부분을 잘라내어 구멍을 뚫고, 그 위를 잉크나 그림 물감을 묻힌 롤러(roller)로 문질러서 물체 모양을 표현하는 방법을 말하며 연속적인 무늬를 표현할 수도 있다.¹⁸⁾

다시 말해 스텐실이란 형지, 찍는 판, 판형 등을 의미하고, 그것은 잉크가 투과하

18) 출처 <http://terms.naver.com/item.nhn?dirId=607&docId=6726>, 2010.10.28

지 못하도록 막는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더 넓은 의미로는 종이나 금속 판을 오려내고 그 구멍으로 물감을 밀어 넣거나 분무기로 뿌어 넣고 찍어내는 것으로 공판화 전체를 총칭하기도 한다.¹⁹⁾

나. 스텐실 판화의 역사

스텐실 판화의 근대화된 기법은 역사가 짧고 기원이 모호하기에 체계적으로 기술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이나, 선사시대에 원시인들이 간단한 이미지 표현을 반복하기 위해 넓은 잎사귀를 이용해 기초적인 스텐실 기법을 사용하였을 것이라고 추측하기도 하고, 동굴 벽면의 장식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반복적인 형태를 스텐실 기법을 이용해서 표현했다는 설도 있다. 또한 고대 사회에서도 여러 군데에서 단순한 스텐실 기법을 사용했던 증거가 발견되었으나, 초기의 스텐실 기법으로 나타내어진 이미지들은 유기물질로 된 안료를 사용한 염색 기법이 중심이었기 때문에 현재 스텐실 기법을 사용한 유물을 찾아보기는 어렵다.

서구에서는 종교인들이 성화와 성구를 전파하기 위하여 스텐실 기법을 사용하였고 중국에서도 장식적인 자수의 도안들을 천에 옮기는 방법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점차 동서양이 문화교류를 가지게 되면서 스텐실은 유럽 전역에까지 전해지게 된 것이다.²⁰⁾ 이러한 기법은 마르코 폴로의 동방기행이 유럽에 전파되면서 동양의 새로운 문물과 사상이 서방에 전달된 것이나 그 당시 사용했던 기법은 단순한 이미지에 적합한 기본적인 스텐실 기법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수준이었다.

스텐실 기법을 사용했던 장인들은 항상 나타내고자 하는 이미지 부분 외의 공간이 채색되지 않게 하기 위해 스텐실을 어떤 방법으로 정확하게 제 위치에 고정시키는가 하는 어려운 한계점에 부딪치곤 했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표현할 이미지 부분 부분을 가느다란 연결 다리를 만들어 사용하였으나 이것이 자유스러운 표현을 방해하는 가장 큰 요소로 작용하였다.

19) 강고운, 「스텐실 기법의 활용을 통한 명도와 채도의 학습지도 방안 연구」, 광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2006

20) 남택운, 『판화와 사진의 연계 관계를 통한 복제 표현의 고찰』, 국내학술지, 1996, p.289

스텐실 기법이 현재의 수준에 이르게 된 것은 1850년대 중반 일본에서 비롯된 것으로 얇은 머리카락이나 미세한 비단실 등으로 짠 지지대를 이용하는 방법이었으며, 이를 통해 복잡하고 유동적인 이미지를 표현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이 기법은 단순한 제작 과정으로도 다량의 인쇄물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스텐실 판화의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오는 계기가 되었고 현재의 스텐실 기법은 다른 판화 기법과는 달리 대담한 이미지와 다양한 색채 표현이 가능하여 현대 광고 산업의 매력적인 표현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3. 스텐실 판화의 교육적 가치

스텐실 판화는 그리기에 서툴러서 미술에 대한 자신감이 상실되었거나 흥미가 없는 학생들에게 반감을 줄여주어 성취도를 높여주고 자신감도 심어줄 수 있다. 이 시기는 로웬펠트(V.Lowenfeld)의 의사 표현 실기에 해당하는 미술 표현 단계의 시기로 청소년기인 중학생들은 눈에 보이는 대상을 그대로 사실적으로 표현해야 만족하고 흥미를 갖게 되는 성향을 보인다.²¹⁾ 이에 스텐실 기법의 표현이 가지고 있는 특징과 교육적 의의를 연관하여 다음과 같은 교육적 가치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미술에 흥미가 없고 이미지가 마음먹은 대로 나오지 않아 표현하는 데 자신감을 잃은 학생들에게 스텐실 판화는 사실적인 표현 능력이 없이도 자신이 의도한 이미지를 충분히 표현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흥미와 의욕을 북돋아 발전적인 변화를 제공하는 데에 도움을 준다. 이에 학생들은 여러 가지 미술 형태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자신감을 높여 보다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도를 표현하는 활동을 할 수 있다.

둘째, 비교적 다른 미술 활동에 비해 사전에 준비되어야 할 재료나 도구에 대한

21) 이상희, 「중학교 미술교육에서 현대사회의 대중적 상징을 활용한 스텐실 표현 지도 연구」, 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 2009

부담이 적고 환경적인 제약이 없으며 판화의 종류 중에서도 제작 방법이 간단한 판 종류로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실생활에서 활용도가 높다. 이는 실제 교육 현장에서 학생들이 미적 체험을 하는 데에 있어 용구 준비에 부담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아주 큰 장점이 된다. 그리고 실생활에서 활용도가 높다는 점으로 인해 학생들의 체험 영역을 확장시키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셋째, 스텐실 판화는 다른 판법과 달리 좌우가 바뀌지 않고 원하는 이미지를 나타낼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학생들이 제작의 원리를 이해하는데 용이하고, 밑그림을 그리고 판을 제작하여 찍는 과정에서 간접성에 따른 독특한 판법과 색다른 미적 체험을 할 수 있다. 또 판의 제작 시 좌우가 바뀌는 것을 고려하지 않아도 되므로 다른 판 종의 제작에 비해 혼란이 없으며 간편한 표현 방법으로 자신감과 성취감을 높인다.

넷째, 판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밑그림을 그리고, 그림을 판으로 옮겨 종이에 찍는 3단계의 과정을 거쳐 작품이 완성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학생들이 부담을 느낄 수 있다. 그러나 표현 활동의 과정에서 스텐실 판화는 다른 판화의 종류와는 달리 종이 뿐 만 아니라 어떤 물체라도 찍고 싶은 곳에 찍을 수 있으며 판을 찍는 과정에서 얼마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수정 및 보완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로 인해 학생들은 주변의 사물을 보는 시각이 다양해지고 여러 가지 표현 방법에 따라 새롭게 재창조하는 창의적인 능력을 기르며 만족스러운 결과물을 얻음으로써 미술에 대한 흥미와 참여도를 증진시키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다섯째, 스텐실 기법의 특성상 단계적인 제작 순서를 계획하고 구상에 맞게 제작해야 자신이 의도한 대로 결과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스텐실 판화의 제작 단계를 체계적으로 거치는 과정에서 계획성을 기르고 집중력을 향상시키며 사고 능력을 키워주고 인내력을 기를 수 있다.

여섯째, 복수성이라는 판화에 있어 가장 중요한 특성을 통해 인쇄의 원리를 경험해 볼 수 있고 같은 이미지를 반복적으로 나타내어 봄으로써 생산의 원리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다. 이러한 복수성은 미술 영역 중에서도 서로에게 자신의 작품을 나누어 주고 선물함으로써 다른 친구들의 작품을 서로 교환하여 소장할 수 있

으며 노동에 대한 체험과 성취감을 느끼게 하는 스텐실의 장점이기도 하다. 이로 인해 학생들은 작품을 충분히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 감상 능력의 향상과 함께 미적 안목을 높이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일곱째, 서로 협동하여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수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노작(勞作)의 가능성을 줄일 수 있는 동시에 서로 의논하여 작품 제작을 진행함에 따라 협동심을 기를 수 있고 모둠 안에서 친밀도를 높이고 공동체 의식을 키워주며 학습 수준을 원만하게 하여 활발한 수업이 진행되게 함으로써 교우 관계가 원활해지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스텐실 판화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한 수업은 다른 미술 영역에서 얻을 수 있는 효과들 외에도 색다른 교육적 가치를 얻을 수 있으며 독특한 느낌이나 특색을 학습할 수 있게 하고 실용적이고 효과적인 수업 방안으로 다양한 지도법을 개발하고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제2절 스텐실 기법을 활용한 수업방안 연구

1. 스텐실 판화 수업의 목표

판화가 가지고 있는 제작 과정의 특성상 학교 내에서 수업이 이루어지기에는 복잡한 점이 많고 학생들이 필요한 재료를 구하기 어려우며 판을 제작하기 위한 시설이 미흡하다보니 많은 제약점이 따른다. 이에 따라 실제 학교 현장에서 판화 수업이 소홀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학생들의 판화에 대한 관심도는 높아지고 있으며 이러한 여러 가지 제약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고 교사의 철저한 선행 준비와 다양한 소재, 그리고 여러 가지 재료를 활용하여 학생들에게 미술에 대한 부담감을 줄이고 자신감 있는 표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도 할 필요성이 있다.

스텐실 판화를 활용한 수업은 다른 기법에 비해 제작 과정이 어렵지 않아 판을 제작하는 데에 제약이 적으며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고 간편하게 재료를 구할 수 있어 학생들에게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판화를 보다 쉽고 재미있게 접근할 수 있다. 또한 제작 과정에서 자신이 구상한 대로 도안을 만들고 의도에 맞게 작품을 완성하기 위하여 찍는 방법이나 순서 등을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하는 작업은 계획성과 집중력을 길러주며 창의적인 발상을 요구한다.

이 때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무리한 진행을 예방하고 자유스러운 표현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기법 설명과 독창적인 창조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끄는 지도가 필요하다.

이러한 스텐실 판화의 실제적인 원리를 적용해서 실용도를 높이는 수업을 실현시키기 위해 생활 주변의 여러 가지 물체와 재료들을 스텐실 판화의 재료로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을 살려 주변의 사물에 대한 느낌이나 물성, 특성 등을 파악하고, 물체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풍부한 사고력을 높일 수 있다. 그리고 생활 주변에서 찾

아닌 다양한 재료의 표현 활동을 통하여 우리 생활 곳곳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미술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찾아보고 직접 체험해 봄으로써 미술적 감성을 길러주는 것은 물론 주변 세계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우리 생활과 미술이 가까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며 경험할 수 있게 함으로써 생각할 수 있는 상상력과 창의성을 신장 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인다.

수업의 모든 과정이 학생 스스로가 생활 주변에서 소재를 찾고 다양한 기법에 따른 표현 활동으로 탐구하고 능동적이며 주체적인 활동을 하는 것에 중점을 둔다. 이러한 체험 과정을 통하여 학생들의 지적, 정신적 발달에 영향을 주며 조화로운 인간상으로 육성시키는데 교사는 학생의 활동을 돕는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한다.

스텐실 판화의 기법은 다채로운 색감과 아름다움을 제공해주며 기본적인 기능을 익히면 그 다음은 스스로 새로운 변화를 얼마든지 살려낼 수 있다는 특성을 활용하여 단순한 지식 및 기술 습득의 수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서 많이 경험했거나 무심코 지나쳤던 사물들을 찾아 각자의 개성에 맞는 구상을 통한 표현 활동을 가능하게 한다. 이에 따라 생활 속에서 활용이 가능한 예술 작품을 직접 만들어 보는 실용적인 수업 모형을 연구하여 학교 안과 밖으로 자연스럽게 미술을 접하고 표현에 대한 부담감을 줄여 창작의 즐거움을 가지고 미술에 대한 흥미를 높여 수업에 참여도를 이끌어 내는 데에 목표를 둔다.

2. 스텐실 제작 방법

가. 도구와 준비

스텐실의 제작 과정에 필요한 재료로는 스케치 도구와 이미지를 그릴 형지, 이미

지가 찍히게 될 판재, 그리고 표현하는 데 사용할 재료와 찍는 도구 등이다.

스케치 도구로는 연필, 크레파스, 물감 등 어떠한 재료도 가능하며 자신이 편리한 도구를 선택하여 사용하도록 허용한다. 형지로 사용될 재료는 그려 넣은 모양 부분을 오려내고 판 위에서 뚫린 부분에 물감을 찍어내기 때문에 물감에 쉽게 젖지 않는 재질이 좋고, 찍어내는 과정에서 형지가 너무 두꺼우면 물감이 섬세하게 묻어나지 않으므로 적당한 두께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따라서 주로 OHP용지와 트레팔지가 사용되며 트레싱지나 도화지, 장판지, 인화지, 아세테이트지, 포장지, 필름지 등도 이용할 수 있다. 스텐실 판화의 제작은 어떠한 판재에도 가능하며 제약이 없고, 찍는 도구와 표현 재료 또한 스스로 구상한 이미지에 맞는 형태의 도구, 판재에 따른 물감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는 일반적인 것이고 수업 내용에 따라 도구와 준비물을 특별히 지정하거나 제한할 수도 있다.

나. 제작 과정

<표 1> 스텐실 판화의 제작 과정



스텐실 판화를 제작하는 과정은 위의 <표 1>과 같이 크게 네 단계로 나뉜다.

먼저 판 제작에 필요한 재료와 용구의 준비를 갖춘 다음 형지의 크기를 정하고, 그 위에 자신이 정한 주제에 맞는 이미지를 구상하여 오려 낼 모양을 스케치 한다. 스케치 과정에서 이미지를 중앙에 그려 물감을 찍을 때 형지를 벗어나 나타낼 이미지 외의 부분에 물감이 묻지 않도록 모양의 주변에 여분이 생기도록 한다. 이미지를 도

안할 때에는 여러 가지 작은 요소들의 모양이 따로따로 나돌지 않게 반드시 외곽선과 모양, 모양과 모양이 서로 연결이 되도록 그려야 한다. 이것을 ‘이음새를 만들어 그린다.’고 하며 모양은 굵은 선으로 그려서 잘라 남길 수 있도록 한다.²²⁾

스케치를 완성한 뒤에는 주로 칼이나 가위를 이용하여 색을 넣을 부분을 오려내는 데, 다색으로 표현할 경우 색의 가지 수대로 형지를 만들거나 철저한 계획 아래에 순서대로 오려낸다. 이 때 이미지의 모양에 따라 곡선 부분은 가위로 돌려가며 자르고, 원을 오려낼 때는 컴퍼스 한 쪽에 필기도구 대신 칼날을 매어 묶어 깔끔하게 자른다. 그리고 칼을 사용할 때에는 칼날을 너무 길게 빼지 않고 두서너 번에 나누어 잘라 안전에 유의하도록 한다. 또 형지의 밑에 고무판이나 유리판 등의 받침을 대고 잘라 바닥에 흠집에 나지 않도록 하고, 잘못 오려내어 떨어져 나간 부분은 셀로판 테이프를 사용하여 연결한다. 이 외에 이미지를 오려내는 방법으로 양초나 모기향 등 열을 가하여 태우거나, 송곳이나 편치 등으로 뚫어 낼 수도 있으며, 어떤 이미지를 그리는 대신 자유롭게 손으로 찢어내어 표현할 수도 있다.

이 때 만들어진 형지는 두 가지이다. 즉, 원하는 모양대로 잘라낸 작은 형지와 모양으로 구멍이 난 큰 바탕 형지이다. 이 양쪽을 다 사용할 수 있는데, 찍힌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시험 삼아 찍어 보고 마음에 드는 쪽을 사용하면 된다.²³⁾

찍는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사용될 수 있다. 수성 및 유성 물감, 크레용, 먹물, 펜, 잉크, 염료 등의 인공적인 재료나 커피, 꽃잎이나 과일의 즙 등 자연에서 얻은 재료 모두 사용이 가능하여 표현하는 데 제약이 없고, 자신의 의도에 맞게 선택하여 표현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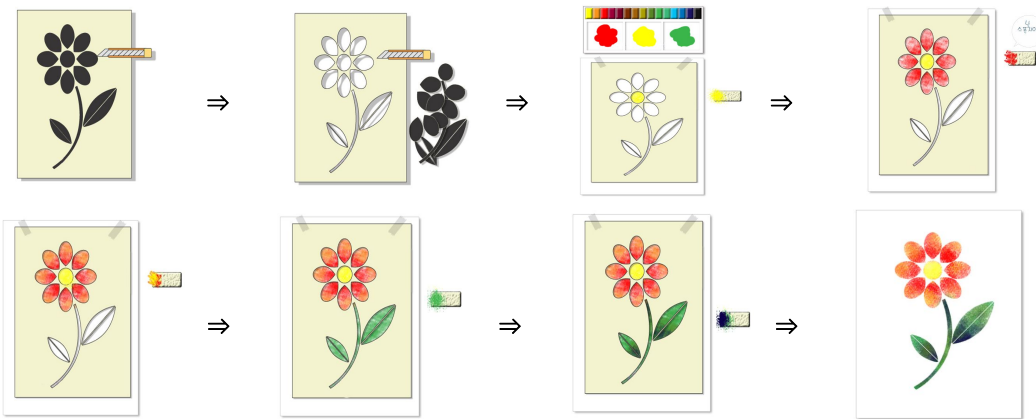
찍는 도구로는 스펀지나 면봉, 붓을 사용하여 주로 두들겨 찍어 내지만 손을 이용하여 문지를 수도 있고 스프레이로 뿌리거나 구긴 종이, 뭉친 형겔 등 다양한 소재로 표현이 가능하다. 일반적인 표현 방법으로는 오려낸 이미지 부분을 찍어내지만

22) 김춘일 · 김성혜, 『어린이 관화교실』, 미진사, 1997, p.132

23) ibid, p.127

그 반대로 이미지의 바깥 부분을 찍기도 한다. 그리고 색의 표현에 있어 두드리는 정도와 물감의 묻기 또는 양에 따라 명암을 표현하거나, 색의 중첩의 효과를 볼 수 있고 다색판의 경우에는 어떤 색을 먼저 찍을지 순서를 정하여 계획 아래 찍어야 하고 주로 밝은 색부터 찍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 외에 표현하는 과정에서 판화만의 장점인 복제성을 이용하여 독특한 효과를 얻기 위해 원판인 형지를 다양하게 재구성하여 찍기도 한다. 그 예로 문자나 이미지를 가로 또는 세로로 변형하여 찍을 수 있고 비스듬하게 혹은 대칭으로 배치하여 찍거나 밀어 찍음으로써 색다른 느낌을 줄 수 있다. 또 똑같은 이미지를 반복하거나 확대 혹은 축소하여 변화를 주고 흐리게 찍거나 물감을 묻게 하여 번지게 하는 등의 응용 기법을 사용할 수도 있다.



[그림 5] 스텐실판화의 제작 과정²⁴⁾

3. 수업 모형

본론 제2절에서 지금까지 이미 개발되어 활용되고 있는 기존의 스텐실 판화 수업 모

24) 출처 <http://jori0506.blog.me/40088509398?Redirect=Log>

형과는 다른, 생활 속에서 실용성을 강조한 수업을 연구하기 위한 탐색 과정으로 스텐실 판화 수업의 목표와 기본 제작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다.

스텐실 판화를 학습 주제로 삼는 수업은 여러 가지 모형으로 설계할 수 있으나 본 논문은 학습 내용과 표현 기법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새로운 각도에서 스텐실 판화 수업의 모형을 탐색하였다.

첫째, 수업 과제에 따라 개별 학습과 협동 학습, 단기 학습과 장기 학습으로 분류하고 개별 학습에는 자신의 물건에 이름을 새기는 수업, 협동 학습에는 모둠별로 계절을 선택하여 달력 만드는 수업을 모형으로 제시하였다.

다음 단기 학습에는 스티커 이용해 다이어리를 꾸미거나 친구들과 서로 선물로 교환하는 수업, 장기 학습에는 사진을 이용한 액자 만들기로 자신의 얼굴을 스텐실 기법을 활용하여 찍어보는 수업을 모형으로 제시하였다.

둘째, 표현 기법에 따라 자연 재료와 인공 재료, 단색 배열과 다색 배열로 분류하고 자연 재료에는 직물류(옷, 가방, 손수건, 양말 등)에 염색 기법과 연관시켜 리폼해 보는 수업, 인공 재료로는 페인트나 락카 등의 가공되어 있는 재료를 뿌리는 기법으로 학급 내 자신의 사물함을 꾸미는 수업을 모형으로 제시하였다.

단색 배열과 다색 배열은 색채 학습과 연계하여 색채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자신의 선택에 따라 배열할 색을 선택하여 편지지를 만드는 수업을 모형으로 제시하고, 타 수업과 연계시켜 보았다.

위와 같은 여러 수업 모형마다 참고 자료로 사용이 가능한 사진을 첨부하고 이에 따른 예시 작품의 제작 과정을 처음 준비에서부터 완성작에 이르기까지 단계별 사진 자료를 첨부하였다. 그리고 각 모형의 수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기대 효과에 대해 기술하였다.

가. 개별 학습 vs 협동 학습

개별 학습은 개인의 소질, 능력, 성격, 환경 등을 고려하여 각 개인에 맞는 방법으로 지도하는 개별적 학습지도법을 말한다.²⁵⁾ 즉 개인이 학습과 관련하여 문제나 지식을 독립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방법으로 자신이 의도한 목표에 개인의 특성에 맞게 도달하도록 하는 수업이라 할 수 있다.

협동 학습이란 작은 규모의 학습이나 개별 학습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집단 구성원들의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상호작용을 활성화시키고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주어진 과제나 목표를 달성하도록 서로 협력에 의해 해결해 나가는 수업을 말한다.

개별 학습의 장점과 단점으로 다음과 같다.

개별 학습의 장점으로는 학습자의 소질, 성격, 환경 등의 특성과 능력 수준에 맞게 수업이 조절 가능하다는 점이다. 즉, 학습자의 능력이나 특성을 고려하여 학습을 진행하는 속도와 개인차를 조정하여 지도를 가능하게 하므로 각각의 개인적으로는 최적의 교수방법이 되는 것이다.

이 학습법은 교사와 학습자 사이에 상호작용이 계속되어 학습 목표에 효과적으로 도달할 수 있으며 학습자가 주도권을 갖게 되면서 독립심을 키우고 그에 따라 스스로 학습을 진행해나가며 책임감 또한 갖게 되는 장점을 가진다.

개별 학습의 단점으로는 개별적으로 학습을 하는 방법이므로 그에 따른 시간과 노력이 많이 필요하게 되고, 학교 현장에서 현실적으로 적용하는 데는 미술 수업 시수가 한정되어 있어 어렵다는 점이다. 교사와 학습자 간의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지만 반면 학습자 상호 간의 친밀한 관계는 결여되기 쉽다.

협동 학습의 장점과 단점은 다음과 같다.

협동 학습의 장점은 개별적으로 학습을 할 때보다 더 많은 양의 내용을 학습할 수 있고 혼자서 해결하기 힘든 문제도 집단 내 구성원들이 서로 협동하여 해결해냄으로써 자신감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이다.

25) 출처 <http://100.naver.com/100.nhn?docid=6460>, 2010.11.13

그리고 학습을 진행하면서 다른 구성원들의 기질이나 성향, 시간의 활용 등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학습 방법을 서로 관찰하고 배우며 집단 활동을 통해 자신의 영역에 책임을 지고 상대방에 대한 이해심을 키울 수 있다. 이러한 집단 활동을 통해 학습자는 자신이 지닌 장점과 약점 등을 발견하고 이해를 넓힐 수 있으며, 나아가 타인에 대한 배려심도 키울 수 있다.

협동 학습의 단점으로는 모둠 내의 목표 달성을 위해 수업을 진행하다보니 내용보다는 결과를 중요시하게 되는 습관이 생길 수 있고, 집단 내 구성원 한 명이 문제에 대한 이해를 잘못했을 때 구성원 전체가 그 내용을 그대로 학습하게 될 위험이 생길 수도 있다. 또 교사에게 의존하는 경향은 감소되지만 집단 내의 응집력이 커지면서 집단 간의 다툼이 일어날 수도 있다. 그리고 이 때 자신의 능력이 떨어진다고 생각되는 학습자는 스스로 불필요한 존재라고 느껴 수치심이나 모멸감이 생기는 등 위축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별 학습과 협동 학습을 수업의 내용에 따라 적절히 조절하고 협동 학습을 할 경우 주기적으로 집단을 재편성하여 진행하도록 한다.

(1) 개별 학습 수업 모형

<표 2> 개별 학습 수업 모형

주 제	자신의 물건에 이름 새기기	
학습목표	1. 자신의 이미지에 맞게 이름을 디자인하여 나만의 개성적인 싸인을 만들 수 있다. 2. 자신의 물건에 대한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다.	
준 비 물	교사	참고 자료(여러 스타들의 싸인 사진), 잉크, 염료
	학생	이름을 새길 물건(실내화, 필통, 토시, 핸드폰, 과일 등), 필기도구(네임펜, 유성매직), 스티커, 락카, 매니큐어, 붓, 스펀지, OHP용지 또는 도화지, 칼, 가위, 셀로판 테이프

선행과제	자신의 이름을 새길 물건을 정하고 이미지 구상하기
학습단계	학 습 활 동
미적 체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참고 자료를 통하여 여러 형태의 싸인을 살펴본다. 2. 친구들과 서로 연상되는 이미지에 대해 이야기한다. 3. 학습 목표를 확인한다.
표현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신의 물건에 이름을 새겨 넣을 위치를 정한다. 2. 싸인의 크기를 정하고 이에 맞게 OHP 용지나 도화지를 자른다. 3. 잘라낸 판 위에 자신의 이미지와 맞게 이름을 디자인하여 밑그림을 그린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용지의 중앙에 그려 주변에 여분을 남겨놓도록 한다. 나. 직접 그리지 않고 스티커나 종이를 잘라 붙여 이미지를 만들고 주변의 색을 넣을 모양으로 넓게 배경 틀을 만들어 찍을 수 있다. 4. 밑그림이 끝난 후 도안을 파내고 자신의 물건 위에 채색을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락카를 뿌릴 때는 도안의 위치를 잡고 다른 부분에 묻지 않도록 다른 종이를 주변을 가려주고 멀리서 뿌리도록 한다. 나. 매니큐어로 찍을 때에는 양 조절을 잘하여 밖으로 새나가지 않도록 찍어낸다. 다. 다색으로 채색을 할 때는 밝은 색부터 찍은 후 그 부분을 셀로판 테이프나 종이로 막고 나서 나머지 부분을 다른 색으로 찍어낸다.
감상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완성된 자신의 작품을 보고 자신의 어떤 이미지를 강조하여 디자인하였는지 이야기한다. 2. 친구들의 작품을 보고 서로 재미있게 표현된 부분을 찾아본다. 3. 자신의 물건에 이름을 찍어 냈으로써 물건을 소중히 다루는 마음을 갖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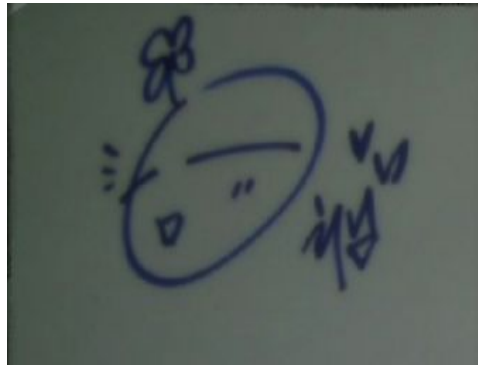
유의점

1. 밑그림을 그릴 때 도안이 따로 나돌지 않도록 연결 부위를 만들어 준다.
2. 도안을 오려낼 때 칼이나 가위를 들고 친구와 장난치지 않도록 조심히 사용하게 주의시킨다.
3. 락카나 매니큐어 외에 다양한 재료를 사용할 수 있게 여러 가지 방법을 소개한다.
4. 채색 시 옷에 묻지 않도록 앞치마나 작업복으로 갈아입도록 한다.
5. 작품 제작 진행 시간이나 감상 시간 중에 떠들지 않도록 조용히 시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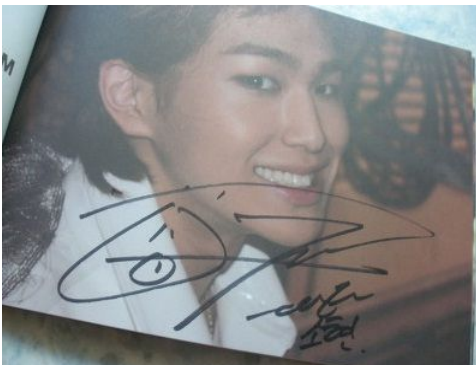
(가) 참고 자료



[그림 6-1] 싸인 1



[그림 6-2] 싸인 2



[그림 6-3] 싸인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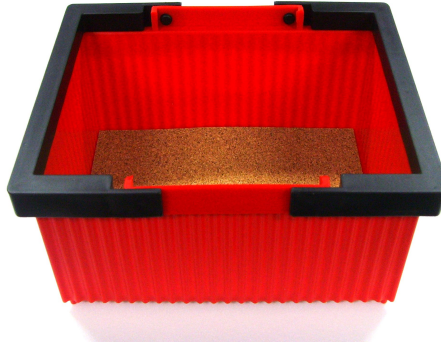


[그림 6-4] 싸인 4

(나) 제작 과정



[그림 6-5] 재료 준비 (파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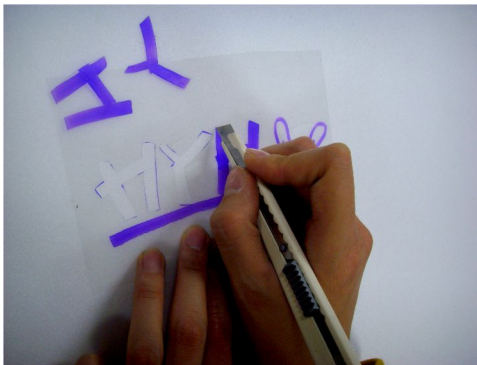
[그림 6-6] 재료 준비 (물건정리함)



[그림 6-7] 재료 준비 (스티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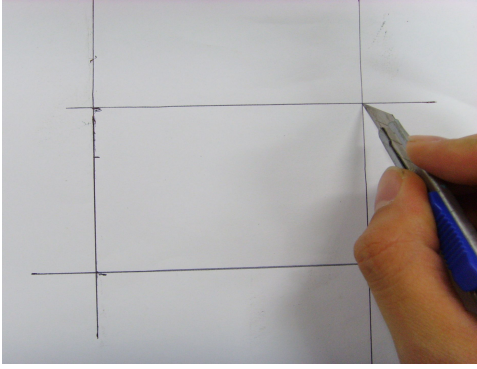
[그림 6-8] 도안 그리기



[그림 6-9] 도안 오려내기



[그림 6-10] 스티커로 이미지 만들기



[그림 6-11] 배경 틀 만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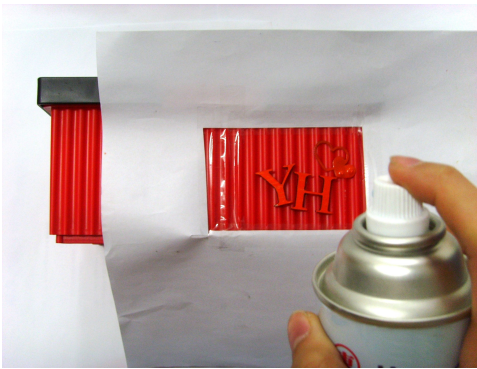
[그림 6-12] 위치 정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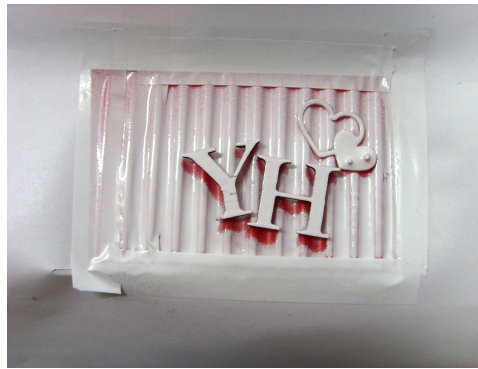
[그림 6-13] 배경 위치 정하기



[그림 6-14] 매니큐어 칠하기



[그림 6-15] 락카 뿌리기



[그림 6-16] 락카 말리기



[그림 6-17] 파일 완성작



[그림 6-18] 물건정리함 완성작

(다) 기대 효과

- 다양한 문자 디자인을 할 수 있다.
- 자신만의 개성 넘치는 싸인을 만들어 봄으로써 창의력과 자신감을 기를 수 있다.
- 자신의 물건에 대한 소중함을 일깨울 수 있다.
- 주변에서 자주 접한 재료를 새롭게 사용함으로써 다양한 재료의 사용과 용구에 대한 사용법을 익히고 표현에 대한 흥미를 높일 수 있다.
- 자신의 싸인으로 물건에 이름을 새기는 것 뿐 아니라 명찰이나 사물함, 방문의 이름표 등에 응용할 수 있다.

(2) 협동 학습 수업 모형

<표 3> 협동 학습 수업 모형

주 제	교실을 아름답게 꾸미기 위한 계절별 달력 제작하기
학습목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각각의 계절이 가진 느낌을 알고 표현해 볼 수 있다. 2. 협동 수업을 통하여 구성원 간의 단결력과 협동심을 기를 수 있다. 3. 달력을 꾸며 교실의 게시판을 꾸밈으로써 성취감을 키울 수 있다. 4. 실생활에서 다양하게 응용하여 활용할 수 있는 태도를 가질 수 있다.

준비물	교사	동기유발 자료(계절에 어울리는 음악), 천, 염료, 접시, 참고 자료(계절별 이미지를 상징하는 사진, 다른 또래 학생들의 예시 작품), 여러 가지 글씨 판(영문, 한글, 숫자)
	학생	OHP 필름, 필기도구(유성 매직, 네임펜, 마카), 팔레트, 가위, 칼, 신문지, 잡지, 포스터 칼라, 수채화 물감, 채색도구(스펀지, 붓, 면봉, 형겔몽치 등), 셀로판 테이프
선행과제	계절별로 떠오르는 이미지 생각해오기 ex) 봄 - 새싹, 나비, 꽃, 봄바람, 따뜻함, 노란색, 초록색 등 여름 - 해수욕장, 수박, 파라솔, 뜨거움, 빨간색, 파란색 등 가을 - 단풍, 낙엽, 허수아비, 가을하늘, 쓸쓸함, 주황색 등 겨울 - 겨울바다, 눈, 눈사람, 장갑, 군고구마, 차가움, 하얀색 등	
학습단계	학 습 활 동	
미적 체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계절에 맞는 노래를 불러본다. 2. 계절별로 기억나는 경험을 말한다. 3. 경험을 바탕으로 느낀 계절별 연상되는 이미지 이야기 한다. 4. 참고 작품과 또래 친구들의 작품을 감상하고 모둠별로 맡은 계절에 들어갈 이미지에 맞게 내용을 구상한다. 5. 학습 목표를 확인한다. 	
표현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모둠별로 맡은 계절에 각자 생각한 이미지를 종합하여 그림의 배치 및 글씨체 고를 학생, 도안을 그릴 학생들로 역할을 분담한다. 2. 각자 맡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그림의 배치를 맡은 학생들은 도화지에 월별 이미지가 들어갈 공간과 계절감을 나타낼 이미지를 넣을 부분의 위치를 정하여 종이에 예상 이미지를 드로잉한다. 나. 글씨체를 고르는 학생들은 달력에 들어갈 숫자나 영문, 한글의 글씨체를 정하여 OHP 용지에 드로잉한다. 	

	<p>다. 도안을 그리는 학생들은 OHP 용지에 네임펜을 사용하여 미리 정해 놓은 이미지를 하나씩 그린다.</p> <p>3. 염료 또는 물감을 사용하여 채색한다.</p> <p>가. 단색으로 할 경우 도안의 전체를 파내고 스펀지나 붓을 이용하여 물감을 구멍에 밀어 넣는다. 이 때 명암을 주고 싶은 경우 물감의 양이나 물을 조절하여 단계적으로 찍어내도록 한다.</p> <p>나. 다색으로 할 경우 먼저 색을 정확히 정하고 채도가 높고 밝은 색부터 찍어야 하는데, 부분 부분을 파 내고 찍은 다음 셀로판 테이프로 막아 다음 색을 찍을 때 묻지 않도록 한다. 이 때 혼색을 하고 싶은 경우는 물감 자체를 섞어 색을 만들어 찍거나 밝은 색부터 어두운 색으로 중첩해가며 자신이 원하는 색을 만들어내도록 한다.</p> <p>다. 이미지를 겹쳐서 다른 색으로 찍어내고 그림자 표현을 해주고 싶은 경우 판을 옮겨 찍어내도록 한다.</p>
<p>감상</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모듈별로 계절감을 표현하기 위해 어떤 색과 이미지를 표현하였는지에 대해 이야기한다. 2. 다른 모듈의 작품들을 보고 잘된 점과 보충하고 싶은 점을 이야기해본다. 3. 완성된 작품을 교실 뒤 게시판에 붙이고 각자의 느낌을 이야기해본다.
<p>유의점</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복잡한 드로잉의 경우 이미지가 서로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도록 한다. 2. 칼을 사용할 시 칼날을 적게 빼 쥐고, 나머지 한 손은 칼날이 나가는 방향의 반대쪽에 위치하도록 지도한다. 3. 천 위에 채색을 할 때 바닥에 새어나가 묻거나 번지기 쉬우므로 물감의 양 조절을 잘 하고 바닥에 신문지를 깔도록 한다. 	

4. 교사가 준비한 글씨 판 외에도 잡지 등을 활용하여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5. 작품의 완성도보다는 새로운 구상과 기법의 표현을 중심으로 감상한다.
6. 염료를 사용할 때 말린 후 다림질을 하여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한다.

(가) 참고 자료



[그림 7-1] 봄 (동성여중 1-5반 모듈1) [그림 7-2] 여름 (동성여중 1-5반 모듈2)



[그림 7-3] 가을 (동성여중 1-5반 모듈3) [그림 7-4] 겨울 (동성여중 1-5반 모듈4)

(나) 제작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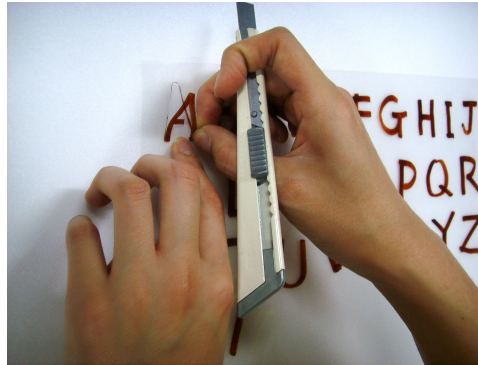
[그림 7-5] 재료 준비 (천)



[그림 7-6] 재료 준비 (염료)



[그림 7-7] 도안 그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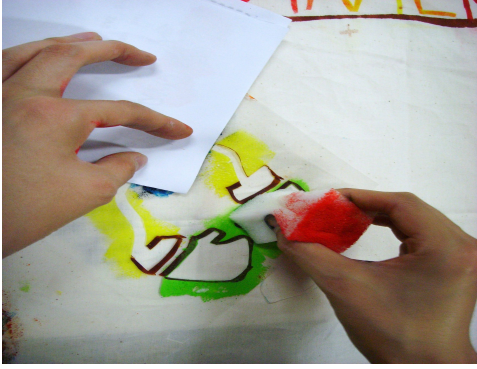
[그림 7-8] 도안 오려내기



[그림 7-9] 염료 접시에 덜어내기



[그림 7-10] 염료 혼색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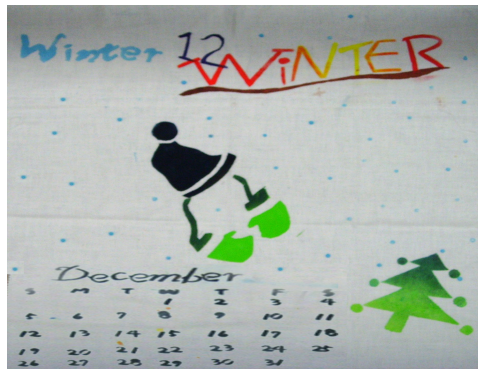
[그림 7-11] 부분 채색하기 1



[그림 7-12] 부분 채색하기 2



[그림 7-13] 그라데이션 효과주기



[그림 7-14] 겨울달력 완성

(다) 기대 효과

- 천에 염료를 이용하여 찍는 스텐실 기법을 통하여 염색의 기능을 알 수 있다.
- 모둠 내 자신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해냄으로써 책임감을 기를 수 있다.
- 종이가 아닌 천에 찍어 새로운 재료에 대한 탐색과 색다른 느낌을 경험할 수 있다.
- 협동 학습을 통해 완성도 높은 작품을 제작할 수 있으며 표현에 대한 부담감을 줄이고 협동심, 단결력을 키울 수 있다.
- 잡지의 이미지를 활용하는 단계에서 표현력이 부족한 학생들도 흥미를 가지고 참여할 수 있으며 결과물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
- 달력 외에도 손수건이나 식탁보, 쿠션커버 등 스텐실 기법으로 손쉽게 응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나. 단기 학습 vs 장기 학습

(1) 단기 학습 수업 모형

<표 4> 단기 학습 수업 모형

주 제	스티커 만들기	
학습목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문자는 마음을 시각적으로 전달하는 중요한 수단임을 이해한다. 2. 간단한 도형이나 캐릭터를 그려 자신의 이야기를 담은 스티커를 제작 할 수 있다. 3. 하나의 도안으로 색을 다르게 하여 여러 장 찍어냄으로써 복제의 의미를 알 수 있다. 4. 다색 판화의 제작 순서와 방법을 알고 표현할 수 있다. 5. 완성된 스티커를 다양하게 활용함으로써 성취감을 느낄 수 있다. 	
준 비 물	교사	참고 자료(재미있는 글귀, 귀여운 캐릭터 등), 코팅 용지
	학생	OHP 필름, 필기도구(유성 매직, 네임펜, 마카), 양면테이프 팔레트, 가위, 칼, 포스터 칼라, 수채화 물감, 아크릴물감 색지, 채색도구(스펀지, 붓, 면봉 등), 신문지, 셀로판 테이프
선행과제	여러 가지 스티커를 모아본다.	
학습단계	학 습 활 동	
미적 체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여러 가지 스티커의 형태를 살펴보고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생각해 보게 한다. 2. 참고 자료를 살펴보고 자신이 이야기 하고 싶은 내용을 정하고 글씨나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이미지를 구상하여 보도록 한다. 	
표현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도화지에 필기도구(네임펜, 매직, 색연필, 크레파스 등)를 사용하여 생각해 온 이미지를 드로잉한다. <p>가. 드로잉 바깥 면에 여백이 남도록 종이의 중앙에 그리도록 한다. 나. 글씨는 뒤집지 않고 그대로 그리도록 한다.</p>	

	<p>2. 도안을 오려낸다.</p> <p>가. 곡선 부분이나 원형의 모양은 칼을 사용하여 깔끔하게 오려내도록 한다.</p> <p>나. 이미지가 따로 떨어지지 않게 주의하여 오려낸다.</p> <p>3. 색지에 채색 도구(스펀지, 면봉, 붓 등)를 사용하여 찍어낸다.</p> <p>가. 단색으로 할 경우 다양한 색을 사용하여 같은 이미지로 여러 장을 찍어낸다.</p> <p>나. 다색으로 할 경우 셀로판 테이프로 막아가며 다른 부분에 묻히지 않도록 주의한다.</p> <p>다. 혼색을 할 경우 판 위에서 그라데이션 효과를 나타낸다.</p> <p>4. 완성된 작품의 테두리를 자신이 원하는 모양으로 오려낸다.</p> <p>5. 모양을 낸 작품을 코팅 용지를 사용하여 코팅한 후 뒷면에 양면 테이프를 붙이고 다시 하나하나 자신이 원하는 모양대로 잘라낸다.</p>
<p>감상</p>	<p>1. 자신의 스티커에 담긴 내용을 친구들에게 발표한다.</p> <p>2. 친구들의 스티커에 담긴 내용과 완성된 작품을 감상하고 재미있는 점과 보충해야할 내용을 이야기해 본다.</p> <p>3. 완성된 스티커를 가지고 다이어리를 꾸미거나 친구들과 교환하면서 작품을 소장하는 계기를 가져본다.</p>
<p>유의점</p>	
<p>1. 최대한 여러 가지 색을 사용하여 다양한 색을 경험할 수 있게 지도한다.</p> <p>2. 칼을 들고 장난치지 않도록 주의시킨다.</p> <p>3. 참고 자료로 다양한 글씨체와 문구, 이미지를 보여주고 표현 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한다.</p> <p>4. 단순한 모양이라도 연결하는 방법이나 배치 방법에 따라 다양한 표현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p> <p>5. 완성된 스티커를 친구들과 교환하여 작품을 소장할 수 있는 계기를 가져볼 수 있게 한다.</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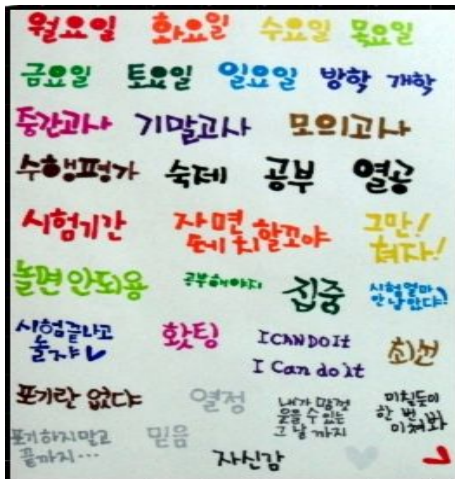
(가) 참고 자료



[그림 8-1] 스티커문구1



[그림 8-2] 스티커문구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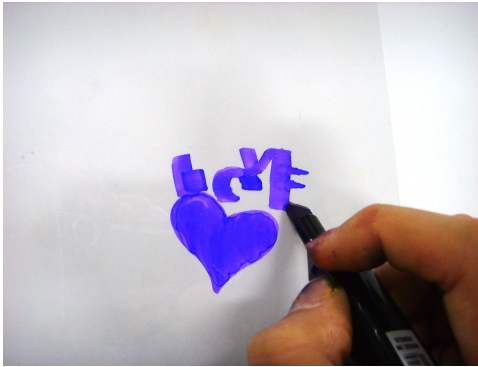


[그림 8-3] 스티커문구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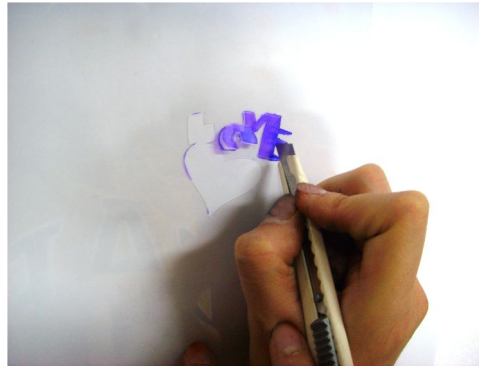


[그림 8-4] 스티커이미지

(나) 제작 과정



[그림 8-5] 도안 그리기



[그림 8-6] 도안 오려내기



[그림 8-7] 위치 정하기



[그림 8-8] 스펀지로 찍기



[그림 8-9] 모양 오려내기



[그림 8-10] 스티커 완성작

(다) 기대 효과

- 자신의 이야기를 담은 스티커를 제작하면서 감정 표현에 서툰 학생들에게 흥미와 자신감을 줄 수 있으며 친구들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볼 수 있다.
- 하나의 판으로도 다양한 색과 효과를 주어 각각 다른 느낌의 스티커를 제작하는 과정을 통해 표현에 대한 부담감을 줄이고 복수성이라는 색다른 경험으로 흥미를 주어 수업의 참여도를 높일 수 있다.
- 다이어리 외에도 스티커로 자신의 물건을 표시하거나 친구들에게 편지를 쓴 후 봉투에 붙여 주는 시간 등을 가져볼 수 있다.
- 이러한 패턴식의 표현으로 포장지를 만들거나 쟁반, 컵 등의 생활 소품을 리폼할 수 있다.

(2) 장기 학습 수업 모형

<표 5> 장기 학습 수업 모형

주 제	사진을 이용한 액자 만들기	
학습목표	1. 스텐실 기법을 활용하여 다색판화의 제작과정을 알 수 있다. 2. 다양한 재료와 용구를 창의적으로 활용하여 재미있게 표현할 수 있다. 3. 인화된 사진을 새롭게 디자인하여 개성 넘치는 액자를 만들 수 있다. 4. 서로의 작품을 소중하게 여기는 태도를 가질 수 있다.	
준 비 물	교사	참고 자료(재미있게 사진을 꾸며놓은 작품의 예), 우드락
	학생	필기도구(유성매직, 네임펜, 색연필, 크레파스 등), 트레팔지, OHP 용지, 팔레트, 양면테이프, 풀, 자, 가위, 칼, 신문지, 물통, 포스터 칼라, 수채화 물감, 아크릴 물감, 매니큐어, 락카, 스펀지, 붓, 면봉, 칫솔, 분무기, 빗, 두꺼운 색도화지, 색종이, 색지, 셀로판테이프

선행과제	사진을 선정하여 사진 속 경험을 떠올려 본다.
학습단계	학 습 활 동
미적 체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진 속 주인공과 담긴 이야기에 대해 친구들과 이야기해본다. 2. 자신의 주제 선정에 대한 이유를 생각해 본다. 3. 참고 자료를 살펴보고 연상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한다. 4. 참고 자료의 제작과정이나 색의 쓰임에 대해 추측해본다. 5. 자신이 정한 주제에 맞는 이미지를 설정해 본다.
표현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진 위에 트레팔지나 OHP 용지를 올려놓고 색을 넣을 부분을 드로잉 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드로잉의 재료를 다양하게 사용하여 각 도구마다 가진 특성을 알고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나. 문양을 그려 넣을 경우 각각 다른 이미지를 그리거나 같은 이미지를 반복해서 표현하는 등의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도록 한다. 다. 넓은 면적으로 배경 자체를 드로잉 할 경우 다양한 색변화나 여러 가지 도구를 사용한 기법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라. 글씨를 넣을 경우 직접 글씨를 쓰거나 잡지 등의 자료도 활용이 가능하도록 자율성을 부여한다. 마. 한 판에 다색의 부분을 나누어 그리거나 이미지 겹치기 또는 하나의 이미지에 여러 가지 색이 들어가는 등의 판 제작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색 가짓수대로 판을 나누어 드로잉 하도록 한다. 2. 색을 넣을 부분을 칼이나 가위로 오려낸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한 판에 다색의 부분을 다 그렸을 경우 철저한 계획 하에 순서대로 오려내도록 한다. 나. 색의 가짓수대로 여러 장에 드로잉 하였을 경우 판을 순서대로 나열하여 섞이지 않도록 주의한다. 3. 오려낸 트레팔지나 OHP 용지를 사진 위에 테이프로 고정시킨다.

	<p>4. 여러 가지 재료와 도구를 사용하여 찍어낸다.</p> <p>가. 물감류를 사용할 시 덩어리를 잘 풀어 뭉치지 않도록 한다.</p> <p>나. 한 판에서 여러 색을 찍어내야 할 경우 색의 순서대로 종이나 셀로판 테이프로 막아가며 찍도록 한다.</p> <p>다. 뿌리는 재료를 사용할 시에 다른 부분에 묻지 않도록 종이나 신문지로 막아놓고 뿌리도록 한다.</p> <p>라. 혼합채색을 할 경우 밝은 색부터 어두운색의 순서로 찍는다.</p> <p>마. 색의 밝기는 물 또는 흰색을 사용하여 조절하고 양의 적당히 하여 번지지 않도록 주의한다.</p> <p>5. 완성된 작품을 우드락에 부착시키고 두꺼운 색도화지를 이용하여 테두리를 만든다.</p> <p>6. 색종이나 싸인펜, 스텐실 기법 등 다양한 재료의 사용으로 액자를 꾸민다.</p>
<p>감상</p>	<p>1. 완성된 액자에 담긴 사진의 의미와 주제에 대해 친구들에게 발표한다.</p> <p>2. 자신의 작품에서 아쉬운 점과 더 보충했으면 하는 부분을 찾아보도록 한다.</p> <p>3. 친구들의 완성된 작품에 담긴 내용을 이해하고 재미있는 점과 표현이 잘 된 부분을 찾아본다.</p>
<p>유의점</p>	
<p>1. 최대한 여러 가지 색과 다양한 재료를 사용하여 색다른 표현의 경험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p> <p>2. 락카나 매니큐어를 사용할 때에는 야외에서 하거나 교실의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 신문지 등을 깔고 사용하도록 한다.</p> <p>3. 칼을 사용하는 시간이 많으므로 절대 장난치지 않도록 주의시키고 칼을 사용하지 않는 시간에는 반드시 칼날을 집어넣도록 주의시킨다.</p>	

4. 참고 자료를 통해 다양한 표현방식을 보여주고 표현 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한다.
5. 작품의 완성도보다 작품 안에 담긴 내용을 중점으로 표현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최대한 창의적인 작품을 제작하도록 지도한다.

(가) 참고 자료



[그림 9-1] 액자 구성



[그림 9-2] 사진 이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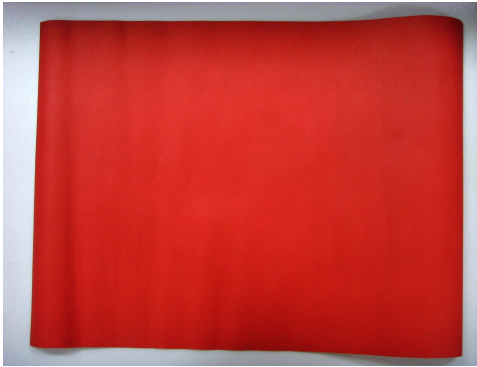


[그림 9-3] 사진 배경



[그림 9-4] 액자 꾸미기

(나) 제작 과정



[그림 9-5] 재료 준비 (색지)



[그림 9-6] 재료 준비 (아크릴 물감)



[그림 9-7] 색지에 사진 붙이기



[그림 9-8] 도안 크기 정하기



[그림 9-9] 도안 그리기



[그림 9-10] 도안 오려내기



[그림 9-11] 붓으로 칠하기



[그림 9-12] 우드락에 붙이기



[그림 9-13] 액자에 스펀지로 찍어 꾸미기 [그림 9-14] 액자만들기 완성작



- (다) 기대 효과
- 색의 혼합이나 중첩의 표현을 통해 우연의 효과를 기대해볼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표현력과 자신감을 향상시킬 수 있다.
 - 사진을 분해하거나 배치하는 등 각각의 색판을 만드는 과정에서 계획성과 집중력을 기를 수 있다.

- 사진을 새롭게 꾸며 액자를 만들어 진열해봄으로써 작품을 소장하는 계기를 갖고 실생활에 폭넓게 활용하는 자세를 기를 수 있다.
- 액자를 만드는 것 외에 사진을 넣은 쿠션이나 명함 등을 만들어 볼 수도 있다.

다. 자연 재료 vs 인공 재료

우리는 생활 주변에서 수많은 꽃이나 열매 등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미술 수업이 학교 교과과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학습의 장을 더욱 넓히는데 이러한 자연물을 활용한다면,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그 속에서 직접 체험을 하여 주변의 모든 자연물 또한 미술 활동의 소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게 된다. 즉 자연 재료를 활용한 수업을 통해 학생들은 스스로 탐구하고 발견해 나가는 자세를 기르고 오감을 이용하여 자연 그 자체로서의 아름다움을 보고 느끼고 만져봄으로써 지각 활동에 도움을 주게 되는 것이다.

그 속에서 다양한 무늬와 색깔을 찾아보고 자신의 작품에 새롭게 활용하는 활동을 통해 미술을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접하고 자신의 개성에 맞게 자유롭게 골라 사용하는 표현에 자율성을 부여할 수 있게 된다.

인공 재료를 활용한 수업은 다양한 재료를 사용해 보고 각각의 특성과 느낌을 알며 여러 가지 표현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스텐실 판화는 어떠한 재료도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특징을 알아보기에 적용하기 좋은 수업의 예이다.

그러나 인공 재료의 경우 가격면에서나 학생들이 준비하는데 있어 불편함이 따를 수 있어 다양하게 활용하기엔 어려움이 있다.

(1) 자연 재료 수업 모형

<표 6> 자연 재료 수업 모형

주 제	리폼하기	
학습목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활 주변에서 염색 재료를 찾아볼 수 있다. 2. 쓸모없는 옷 등을 새롭게 꾸며 리폼의 의미를 알 수 있다. 3. 세상에서 하나뿐인 나만의 작품을 만들 수 있다. 4. 서로의 작품을 보고 다양한 기법의 활용에 대해 이야기 할 수 있다. 5. 실생활에서 다양하게 응용할 수 있는 태도를 가질 수 있다. 	
준 비 물	교사	참고 자료(직물류에 스텐실 기법이 응용된 예), 믹서기
	학생	OHP 용지, 필기도구(유성 매직, 네임펜, 마카), 양면테이프 자연재료(꽃잎, 열매, 야채, 과일 등), 셀로판 테이프, 칫솔, 칼, 음식물(커피, 코코아 등), 스펀지, 스프레이, 면봉, 신문지, 화장지, 가위, 직물류(티셔츠, 양말, 손수건, 가방 등)
선행과제	주변에서 여러 종류의 색을 가진 자연물을 찾아본다.	
학습단계	학 습 활 동	
미적 체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변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재료를 다양하게 탐색하여 본다. 2. 자연의 색을 알고 이해한다. 3. 리폼의 의미를 친구들과 서로 이야기해 본다. 4. 참고 자료를 살펴보고 여러 가지 표현과 색의 조합을 생각해본다. 5. 학습 목표를 이해한다. 	
표현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짝을 사물 위에 OHP 용지를 올려놓고 위치와 드로잉의 크기를 정한다. 2. 용지의 크기에 맞게 밑그림을 그린다. 3. 도안을 색의 순서대로 오려낸다. 가. 곡선 부분이나 원형은 칼을 사용하여 깔끔하게 오려낸다. 나. 이미지가 따로 떨어지지 않게 주의하여 오려내고 잘못 잘랐을 경우 셀로판 테이프를 붙여 수정한다. 4. 다양한 자연 재료를 찢거나 갈고 으깨어 즙을 낸다. 5. 음식물의 경우 찌꺼기가 남지 않도록 걸러내어 사용한다. 	

	<p>6. 다양한 채색 도구(스펀지, 면봉, 붓, 스프레이, 칫솔, 빗 등)를 사용하여 여러 가지 표현기법으로 찍어내어 다양한 우연의 효과를 나타내 본다.</p> <p>가. 하나의 이미지를 겹치거나 밀어 찍기, 반복 등의 효과로 색의 변화와 함께 다양하게 표현한다.</p> <p>나. 다색으로 할 경우 셀로판 테이프로 막아가며 다른 부분에 묻히지 않도록 주의한다.</p> <p>다. 혼색을 할 경우 밝은 색부터 어두운 색으로 변화를 주어 그라데이션 효과를 내도록 한다.</p> <p>라. 묽은 재료의 사용 시에는 화장지나 손으로 짜내어 물 조절을 하여 번지지 않도록 한다.</p> <p>마. 이미지를 찍을 부분 외에 물감이 묻지 않도록 종이나 신문지로 가리고 찍도록 한다.</p> <p>7. 완성된 작품은 햇볕에 잘 말리도록 한다.</p>
<p>감상</p>	<p>1. 각자 작품의 표현기법과 사용한 재료를 이야기해본다.</p> <p>2. 자신의 작품을 직접 착용해 본다.</p> <p>3. 서로의 작품을 감상하고 잘된 점과 창의적인 표현을 찾아보고 이야기한다.</p>
<p>유의점</p>	
<p>1. 도안을 자를 때 따로 나돌지 않게 연결부위를 만들도록 주의시킨다.</p> <p>2. 칼을 들고 장난치지 않도록 주의시킨다.</p> <p>3. 채색 시 옷이나 양말, 가방과 같이 두 겹으로 재봉되어 있는 경우 사이에 신문지나 두꺼운 도화지를 대고 손수건과 같이 얇은 소재의 경우 바닥에 묻지 않도록 주의시킨다.</p> <p>4. 햇볕에 마르는 과정에서 색이 변화될 수 있으니 미리 이야기해주도록 한다.</p> <p>5. 작품의 완성도보다는 독창성과 창의력을 중점을 두고 감상하도록 한다.</p>	

(가) 참고 작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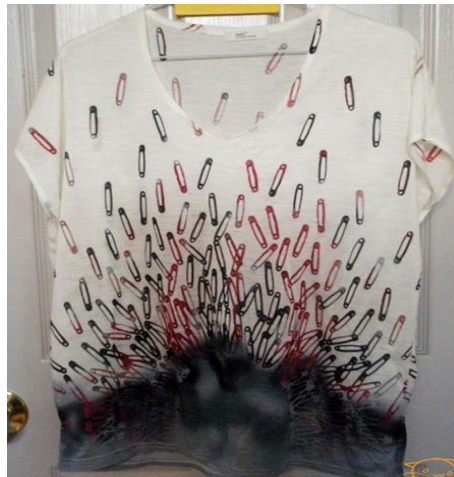
[그림 10-1] 가방 리폼



[그림 10-2] 손수건 리폼



[그림 10-3] 티셔츠 리폼 1



[그림 10-4] 티셔츠 리폼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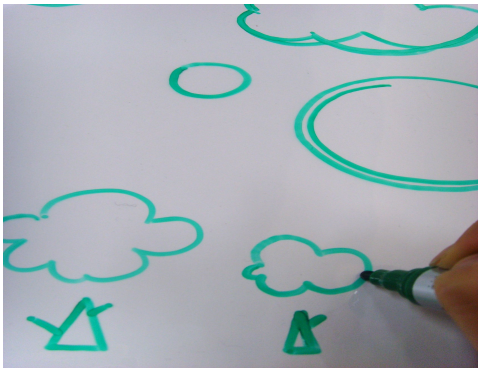
(나) 제작 과정



[그림 10-5] 재료 준비 (티셔츠)



[그림 10-6] 재료 준비 (과일, 주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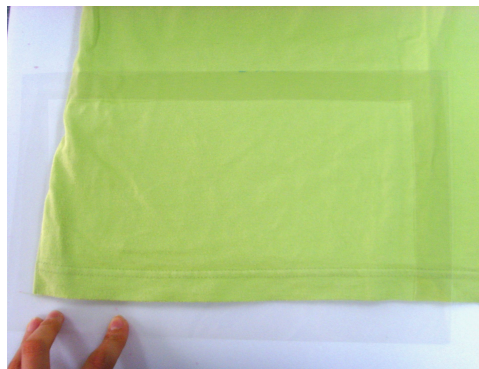
[그림 10-7] 도안 그리기



[그림 10-8] 도안 오려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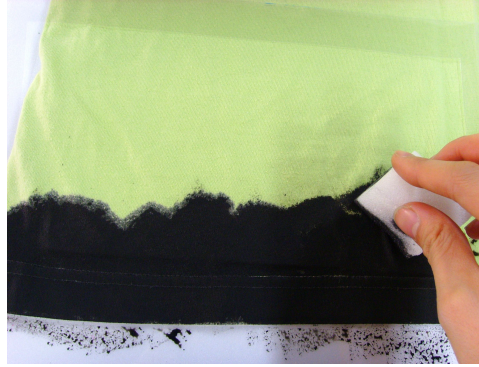
[그림 10-9] 옷감 사이에 두꺼운 종이 넣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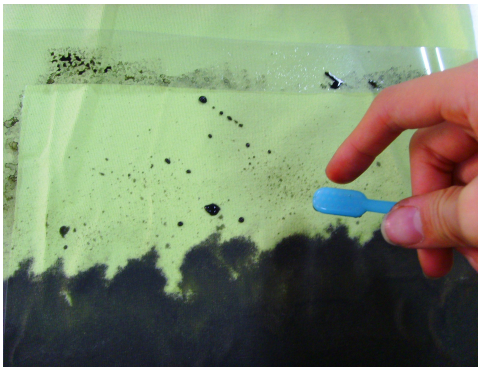
[그림 10-10] 위치 정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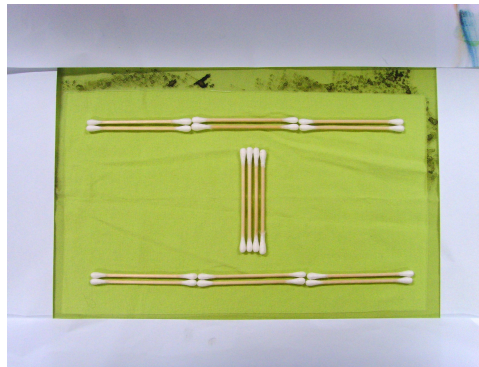
[그림 10-11] 스펀지에 먹물 묻히기



[그림 10-12] 스펀지로 짙어내기



[그림 10-13] 칫솔로 뿌리기



[그림 10-14] 이미지 만들기



[그림 10-15] 분무기로 주스 뿌리기



[그림 10-16] 자연 재료 티셔츠리폼 완성

(다) 기대 효과

- 자연 속 여러 가지 재료를 작품에 활용하면서 자연의 아름다움과 자연의 색을 새롭게 관찰하는 시각을 확장시킬 수 있다.
- 여러 가지 재료와 표현 기법의 사용으로 우연의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고, 표현 능력이 떨어지는 학생들도 자신감을 가지고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 완성된 작품을 착용하고 축제 때 패션쇼를 하거나 판매를 해보는 경험을 할 수 있다.
- 패션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로 하여금 의상디자인과 연결시켜 다양하고 창의적인 제작 활동에 계기를 만들어 줄 수 있다.
- 커튼, 식탁보, 앞치마 등 다양한 생활 소품으로의 활용 능력을 키워줄 수 있다.

(2) 인공 재료 수업 모형

<표 7> 인공 재료 수업 모형

주 제	사물함 꾸미기	
학습목표	1. 스텐실 기법을 활용하여 자신의 사물함을 꾸며볼 수 있다. 2. 사물함을 꾸며 교실의 분위기를 바꾸어 볼 수 있다. 3. 서로의 작품을 보고 다양한 기법의 활용에 대해 이야기 할 수 있다. 4. 실생활에서 다양하게 응용할 수 있는 태도를 가질 수 있다.	
준 비 물	교사	참고 자료(벽화, 실내 인테리어, 그래피티 등의 사진 자료), 아크릴물감, 페인트
	학생	OHP 용지, 필기도구(유성 매직, 네임펜, 마카), 팔레트, 가위, 칼, 신문지, 포스터칼라, 락카, 매니큐어, 셀로판 테이프, 채색 도구(스펀지, 붓, 면봉 등)
선행과제	생활 주변에서 벽화나 벽지의 프린트 된 이미지들을 살펴본다.	

학습단계	학 습 활 동
미적 체험	1. 다양한 인공재료(락카, 매니큐어, 페인트 등)의 특성을 알아본다. 2. 주변의 다양한 벽화나 포인트 벽지를 찾아보고 효과와 느낌에 대해 이야기해본다. 3. 참고 자료를 살펴보고 인테리어의 의미를 생각해본다.
표현	1. 도화지에 필기 도구(네임펜, 매직, 색연필, 크레파스 등)를 사용하여 밑그림을 그린다. 가. 드로잉 바깥 면에 여백이 남도록 종이의 중앙에 그리도록 한다. 나. 글씨는 뒤집지 않고 그대로 그리도록 한다. 다. 색의 가짓수대로 여러 장에 밑그림을 그린다. 라. 다양한 드로잉 재료로 도구의 특성을 알 수 있게 한다. 2. 도안을 오려낸다. 가. 곡선 부분이나 원형은 칼을 사용하여 깔끔하게 오려낸다. 나. 이미지가 따로 떨어지지 않게 주의하여 오려낸다. 다. 계획한 순서대로 도안을 정리하여 섞이지 않도록 한다. 3. 사물함에 위치를 잡고 도안을 셀로판 테이프로 고정시킨다. 4. 여러 가지 효과를 생각하며 다양한 도구로 채색하도록 한다. 가. 다른 부분에 색이 묻지 않도록 종이나 신문지로 가리고 한다. 나. 하나의 이미지를 겹치거나 밀어 찍기, 대칭, 다양한 색 등으로 반복 사용하여 재미있게 표현을 해본다. 다. 혼색을 할 경우 판 위에서 그라데이션 효과를 나타낸다. 라. 밝은 색부터 어두운 색의 순서로 채색한다. 마. 락카의 사용 시 조금 떨어져 뿌려 흘러내리지 않도록 한다. 바. 페인트나 아크릴물감 사용 시 흰색과 혼합하여 명도를 높이고 다른 색과의 혼색을 하여 색의 변화를 준다.
감상	1. 자신의 작품을 친구들에게 발표하도록 한다.

	<p>2. 친구들의 스티커에 담긴 내용과 완성된 작품을 감상하고 제작 과정에서 느낀 점을 이야기해 본다.</p> <p>3. 완성한 후 멀리서 바라보며 감상하는 시간을 가져보고 교실 내의 분위기 변화에 대해 이야기해 본다.</p>
<p>유의점</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최대한 다양한 표현 기법으로 자신이 원하는 이미지를 표현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2. 참고 자료로 다양한 방법을 보여주고 표현 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한다. 3. 칼을 들고 장난치지 않도록 주의시킨다. 4. 옷에 묻지 않도록 앞치마나 작업복을 입도록 한다. 5. 바닥에 묻지 않도록 비닐이나 종이, 신문지를 깔도록 한다. 6. 반드시 창문을 열어 교실의 공기를 환기시킨다. 7. 다양한 응용의 예를 소개하고 생활 속에서 활용할 수 있게 지도한다. 	

(가) 참고 자료



[그림 11-1] 그래피티 1



[그림 11-2] 그래피티 2



[그림 11-3] 벽화



[그림 11-4] 실내 인테리어

(나) 제작 과정



[그림 11-5] 위치 정하기



[그림 11-6] 도안 그리기



[그림 11-7] 도안 오려내기



[그림 11-8] 배경 뿌리기



[그림 11-9] 부분 채색하기



[그림 11-10] 사물함 꾸미기 완성작

(다) 기대 효과

- 사물함 꾸미기 수업을 통하여 교실의 전체 분위기가 아름답게 바뀌는 경험을 할 수 있고 확산적 사고를 자극하며 이에 따른 창의적 결과물을 기대할 수 있다.
- 다양한 재료의 특성을 알 수 있고 색다른 표현에 대한 흥미를 높일 수 있다.
- 실생활에서 관화의 재료를 찾을 수 있는 것에 흥미를 가지며 스스로 재료를 수

집하고 탐색하는 태도를 기를 수 있다.

- 실내 인테리어를 위한 포인트 벽지나 벽화 등 실제 생활 속에서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줄 수 있다.
- 미술의 영역을 학교 안에서 밖으로 확장시켜 생활 속에서 미술을 접하고 쉽게 다가갈 수 있게 한다.

라. 단색 배열 또는 다색 배열

색은 우리 생활 속에서 환경이나 주변 사물에 따라 항상 변화되며 자연의 변화나 계절의 변화, 동물과 식물의 색 등을 포함한 수천 가지의 색들의 창조로 인해 우리의 생활은 한층 풍요로워졌다. 색채를 통한 학습은 색의 성질의 이해뿐만 아니라 색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현상과 사람의 감정을 자극하는 효과가 있다는 색의 특성에 대해 알 수 있다.

이 수업은 학생들에게는 다양하고 풍부한 색채 감각을 기르는 데 학습의 목적이 있으며 다양한 색의 변화를 탐색하게 하고 표현하게 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연구자는 학생들로 하여금 명도와 단색 배열과 다색 배열의 표현을 통해 따뜻한 계열, 차가운 계열, 색채의 이미지 등의 혼합 활동을 제시하고 그 변화를 탐색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다시 말해 여러 가지 색이 가진 성질과 특성을 알고 그에 따른 변화를 탐색하여 표현하는 과정을 통해 다양하고 풍부한 색채 감각을 기르는 데 목적이 있다. 또, 우리 생활과 색의 밀접한 관계를 알고, 건축, 인테리어, 패션 등의 모든 조형 활동의 기초가 되는 색채 감각을 터득하여 활용 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도 시 유의점으로 다양한 색의 활용으로 표현 능력을 길러주며 이론 뿐 아닌 활동 과정 속에서 색채의 감각과 지식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도록 한다.

(1) 단색 배열 또는 다색 배열 수업 모형

<표 8> 단색 배열 또는 다색 배열 수업 모형

주 제	편지지 만들기	
학습목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문자는 마음을 시각적으로 전달하는 중요한 수단임을 이해한다. 2. 스텐실 기법을 활용하여 편지지를 만들어 볼 수 있다. 3. 단색 또는 다색 중 한 가지를 골라 창의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4. 편지지를 만들어 그 위에 편지를 쓰고 실제 부칠 수 있다. 5. 서로에게 마음을 표현하는 시간을 가져볼 수 있다. 	
준 비 물	교사	참고 자료 (다양한 편지지의 예), 예쁜 스티커
	학생	OHP 필름, 도화지, 유성 매직, 네임펜, 마카, 색연필, 싸인펜, 크레파스, 물통, 팔레트, 가위, 칼, 신문지, 포스터칼라, 수채 화물감, 아크릴 물감, 풀, 색지, 스펀지, 붓, 면봉, 칫솔, 빗, 셀로판 테이프
선행과제	누군가에게 편지를 써본 경험을 떠올려보고 편지를 전해 줄 사람을 생각해본다.	
학습단계	학 습 활 동	
미적 체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참고 자료를 통해 여러 가지 편지지의 형태를 살펴보고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생각해 보게 한다. 2. 편지를 썼던 경험을 떠올리며 그때의 느낌을 친구들과 서로 이야기해본다. 3. 참고 자료를 살펴보고 자신이 이야기 하고 싶은 내용을 정하고 글씨나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이미지를 구상해보도록 한다. 4. 학습 목표를 이해한다. 	
표현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도화지나 OHP 용지에 필기 도구(네임펜, 매직, 색연필, 크레파스 등)를 사용하여 편지지에 넣을 도안을 그린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드로잉 바깥 면에 여백이 남도록 종이의 중앙에 그리도록 한다. 나. 글씨는 뒤집지 않고 그대로 그리도록 한다. 다. 점, 선, 면을 활용하여 본다. 	

	<p>2. 도안을 오려낸다.</p> <p>가. 칼과 가위를 사용하여 깔끔하게 오려내도록 한다.</p> <p>나. 원형을 오려낼 때에는 컴퍼스의 한쪽 끝에 칼날을 묶어 잘라내도록 한다.</p> <p>다. 이미지가 따로 떨어지지 않게 주의하여 오려낸다.</p> <p>3. 색지에 채색 도구(스펀지, 면봉, 붓 등)를 사용하여 찍어낸다.</p> <p>가. 색지 위에 도안이 오려진 판을 올려놓고 색의 순서대로 찍는다.</p> <p>나. 단색으로 할 경우 다양한 색과 기법을 사용하여 같은 이미지를 여러 가지 형태로 찍어낸다.</p> <p>다. 다색으로 할 경우 셀로판 테이프나 종이로 막아가며 찍거나 색의 가짓수대로 만들어진 도안을 순서대로 놓고 다른 부분에 묻히지 않도록 주의하여 찍는다.</p> <p>라. 혼색을 할 경우 판 위에서 그라데이션 효과를 주거나 파레트에서 물감을 섞어 나타낸다.</p> <p>마. 물감을 섞을 때 흰색을 사용하여 명도를 높이거나 물의 양을 조절하여 열게 하고 서로 다른 보색을 섞어보며 다양한 색을 사용하여 본다.</p> <p>4. 완성된 편지지에 직접 손글씨로 편지를 작성한다.</p>
<p>감상</p>	<p>1. 자신의 편지지에 담은 느낌을 친구들에게 발표한다.</p> <p>2. 친구들과 서로 편지를 주고받으며 마음을 전해 본다.</p> <p>3. 친구의 편지를 읽어보고 편지지 안에 담은 느낌과 표현된 기법, 다양한 색의 조화를 살펴보고 이야기해본다.</p>
<p>유의점</p>	
<p>1. 최대한 여러 가지 색을 사용하여 다양한 색을 경험할 수 있게 지도한다.</p> <p>2. 단색이나 다색 중 하나를 골라 표현할 수 있도록 한다.</p> <p>3. 편지를 못 받은 학생이 없도록 번호를 지정해 주거나 짝꿍에게 편지 쓰는 등의 방법을 이용한다.</p> <p>4. 평가 위주의 수업보다는 서로 알아가는 계기가 되고 손글씨를 써봄으로써 옛 추억을 떠올려보는 시간을 위주로 진행한다.</p>	

(가) 참고 자료



[그림 12-1] 편지지 이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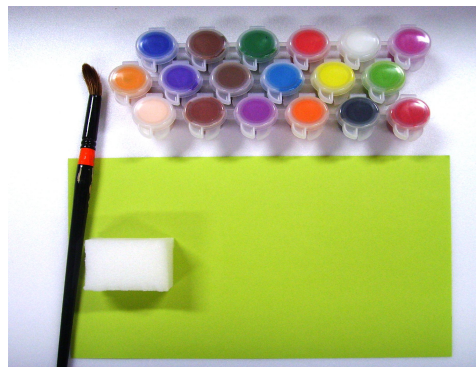


[그림 12-2] 카드 이미지

(나) 제작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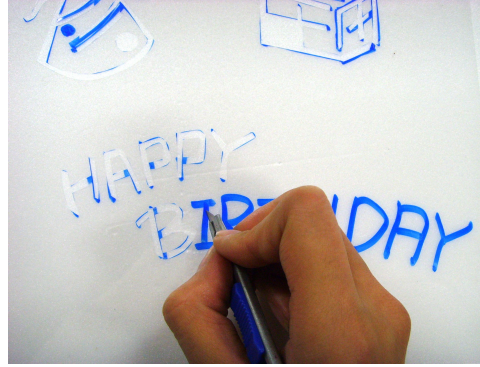
[그림 12-3] 재료 준비 (색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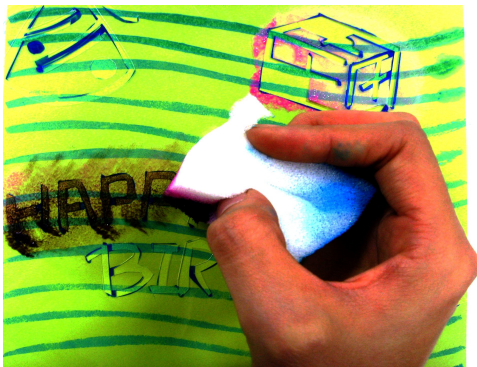
[그림 12-4] 재료 준비 (채색도구)



[그림 12-5] 도안 그리기



[그림 12-6] 도안 오려내기



[그림 12-7] 다색으로 채색하기



[그림 12-8] 편지지 완성작

(다) 기대 효과

- 손쉽게 주고받는 핸드폰이나 인터넷 메일에 비해 정성을 더해 마음을 전달하는 것이 상대방에게 기쁨을 주고 우정이나 사랑을 돈독하게 하는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체험할 수 있다.
- 단색 배열과 다색 배열의 표현을 통해 색의 감각을 익히고 생활 속에서 색이 갖는 의미, 효과 등을 알아볼 수 있다.
- 국어시간에 스승의날이나 어버이날 등 기념일에 편지 쓰는 수업을 연계하여 진행할 수 있다.
- 편지만이 아니라 앨범이나 일기장, 입체카드로 확대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3장 결 론

본 논문은 중등 미술교육에서 실생활에서도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을 중점으로 하는 수업 방안을 연구하는데 있어 스텐실 판화 기법을 적용하여 생활에 직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보다 풍부한 재료와 방법을 모색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표현 욕구를 높여 흥미를 이끌어내고 수업에 참여도를 높이는 데에 목적과 필요성을 두었다.

본론의 제1절에서는 스텐실 판화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각종 문헌 연구를 통하여 판화의 개념과 판법에 따라 볼록판화, 오목판화, 평판화, 공판화로 분류하여 종류를 살펴보고, 그 중 본 논문에서 중점으로 다뤄질 스텐실 판화에 대한 구체적인 개념과 역사를 알아보았다.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스텐실 판화를 수업에 적용할 시 다음과 같은 교육적 가치를 기대해 볼 수 있었다.

첫째, 여러 가지 도구를 활용한 간접 회화로서 미술수업에 있어 표현에 대한 흥미와 의욕을 북돋아 줄 수 있다.

둘째, 재료나 도구에 대한 제약이 적어 실생활에서의 활용도가 높아 체험 영역을 확장시키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셋째, 제작 원리가 간단하여 판화의 표현영역에 대한 부담감을 줄이고 자신감과 성취감을 높일 수 있다.

넷째, 다양한 사물에도 제작이 가능하므로 주변 탐색을 통하여 사물을 보는 시각이 넓어지며 재창조를 통한 창의적, 독창적 능력을 기를 수 있다.

다섯째, 판의 제작에 있어 단계적인 순서를 계획하여야 하므로 계획성과 집중력을 기를 수 있다.

여섯째, 복수성이라는 특성을 활용해 찍혀 나오는 작품의 제작 원리를 경험하고 여러 장을 만들어 서로의 작품을 소장함으로써 감상능력 및 미적 안목을 높이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일곱째, 협동 수업이 가능하므로 모둠 내에서 공동체의식을 키워주며 친밀도를 높이고 협동심을 기를 수 있다.

제2절에서는 스텐실 기법을 실생활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수업 방안을 연구하는데 있어 먼저 다음과 같은 목표 설정을 하였다.

단순한 지식이나 기술 습득의 수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학생 스스로 주변을 탐색하여 소재를 찾고 스텐실 기법을 통해 실생활에서 사용이 가능한 예술작품을 만드는 수업모형을 연구한다. 이 때 교사는 학생들의 주체적인 활동을 이끄는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학교 안과 밖으로 자연스럽게 미술을 접하여 창작에 대한 흥미를 높이고 수업에 참여도를 이끌어 내는 데에 목표를 둔다.

스텐실 기법의 제작에 필요한 재료와 단계별 방법을 소개하여 스텐실에 대한 이해를 돕고 구체적인 수업 모형을 개별학습과 협동학습, 단기학습과 장기학습, 자연 재료와 인공재료, 단색배열과 다색배열의 지도 방식으로 나누어 이에 적용할 수 있는 실기 학습법을 다음과 같이 연구하였다.

첫째, 각 지도 방식에 적용할 수 있는 실기 주제를 선정하여 효과적인 수업 모형을 제시하였다.

둘째, 수업 모형마다 참고 자료로 사용이 가능한 사진과 예시 작품의 제작 과정을 단계별로 사진을 찍어 첨부하였다.

셋째, 각 지도 방식에 따른 수업을 진행했을 경우에 기대되는 효과에 대해 연구하였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창의적이고 개성적인 표현에 대한 자신감을 높이고 능력을 신장하기에 적합한 교육적 도구로서 스텐실 기법을 활용하여 일련의 기계적인 과정들을 익히는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이용되고 있는 판화 기법들을 찾아보고

응용하여 재창조하는 과정을 거침으로써 실생활에 있어서 미술과의 밀접한 관계를 알고 이를 통한 활용 교육의 가능성을 발견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이로 인해 학생들은 미술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여 생활화를 활성화 하는 계기로 삼으며 더불어 바람직한 미술 교과교육을 위한 다양한 지도법과 실용성을 강조하는 수업 연구가 지속적으로 개발되어 체계적인 교수활동은 물론 미술교육에 대한 활성화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단행본

- 곽남신, 『현대판화기법 I -목판화와 동판화』, 예경, 1994
- 곽덕준, 김재권, 『세계현대판화』, 승례문, 1994
- 김삼량, 『美術教育概論』, 미진사, 1992
- 김순겸, 안혜경, 『동양미술사』, 두리미디어, 2005
- 김정순 외, 『판화미술의 세계』, 서치방, 1994
- 김춘일, 김성혜, 『어린이 미술 표현 교실』, 예경, 1997
- 노영자 외, 『필승 미술』, 서울 : 교학사, 2001
- 서승원, 『판화미술의 세계』, 서치방, 1994
- 오근재 편 역, 아오키 마사오 지음, 『디자인 표현기법』, 미진사, 1996
- 오종숙, 『유아 미술교육의 이론과 실제』, 민서원, 1988
- 이주현, 『미술로 보는 20세기』, 학고재, 1998
- 장경희, 『한국 미술문화의 이해』, 예경, 2004
- 툼앤더슨외 지음, 김정희외 옮김, 『삶을 위한 미술교육』, 예경, 2007
- 하세가와 기미유키, 구자현 역, 『현대판화의 기초』, 시공사, 2002
- 한국미술교과교육학회, 『미술교육이론의 탐색』, 예경, 2003
- 한국현대판화가협회, 『한국 현대판화의 담론과 현장』, 국립현대미술관, 2007

학술지

- 남택운, 『판화와 사진의 연계 관계를 통한 복제 표현의 고찰』, 국내학술지, 1996

학위 논문

- 강고운, 「스텐실 기법의 활용을 통한 명도와 채도의 학습지도 방안 연구」, 광주
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2006
- 구득환, 「일반미술교육에서의 판화지도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75
- 김서영, 「새로운 판화 기법연구」, 경기대학교 조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 김태효, 「초등학교 미술교육에서 바람직한 판화지도를 위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8
- 성영동, 「판화를 통한 미술교육의 특성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 신선미, 「초등미술에서 현대미술의 기법을 통한 아동화 표현력 신장」, 공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 이덕호, 「시각적 사고력 신장을 위한 판화지도 방안」, 한국교원대 석사학위논문,
1994
- 이상희, 「중학교 미술교육에서 현대 사회의 대중적 상징을 활용한 스텐실 표현 지
도 연구」, 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 2009
- 이지선, 「초등 미술에서 다양한 재료와 방법을 이용한 스텐실 기법 개발 및 적용
연구」, 광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2004
- 조선아, 「디지털 미디어를 통한 중등 판화미술교육의 지도방안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 최지영, 「판지를 이용한 오목 판화 지도 연구」, 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2003

사이트

- 네이버 백과사전, <http://100.naver.com/100.nhn?docid=6460>
- 네이버 블로그, <http://gnp3737.com.ne.kr/home.htm>
- 네이버 블로그, <http://jori0506.blog.me/40088509398?Redirect=Log>
- 네이버 용어사전, <http://terms.naver.com/item.nhn?dirId=607&docId=6726>

저작물 이용 허락서

학 과	미술교육	학 번	20088114	과 정	석사
성 명	한글: 한 예 형 한문: 韓藝熒		영문: Han, Yea-hyung		
주 소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한양아파트 301동 507호				
연락처	010-3609-7358		E-MAIL: pinecool_yh@naver.com		
논문제목	한글 : 중등 미술수업의 참여도 증진을 위한 실생활 활용 방안 연구 (스텐실 판화를 중심으로) 영문 : A study on utilization in real life for improving participation in secondary art class (focusing on stencil print)				

본인이 저작한 위의 저작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 아래 조선대학교가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동의합니다.

- 다 음 -

1. 저작물의 DB구축 및 인터넷을 포함한 정보통신망에의 공개를 위한 저작물의 복제, 기억장치에의 저장, 전송 등을 허락함
2. 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의 편집·형식상의 변경을 허락함.
다만, 저작물의 내용변경은 금지함.
3. 배포·전송된 저작물의 영리적 목적을 위한 복제, 저장, 전송 등은 금지함.
4. 저작물에 대한 이용기간은 5년으로 하고, 기간종료 3개월 이내에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저작물의 이용기간을 계속 연장함.
5.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출판을 허락을 하였을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대학에 이를 통보함.
6. 조선대학교는 저작물의 이용허락 이후 해당 저작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타인에 의한 권리 침해에 대하여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
7. 소속대학의 협정기관에 저작물의 제공 및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저작물의 전송·출력을 허락함.

2011년 2월

저작자: 한 예 형 (서명 또는 인)

조선대학교 총장 귀하